

제6절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1.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
2. 보건의료 기능 강화 및 의료산업 육성
3.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전남
4. 건강한 가정 육성

제6절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1.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1-1.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

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생활지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며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매년 9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공표하는 기준중위소득에서 수급권자의 소득 평가액을 차감하여 그 나머지 금액만큼을 지원하여 모든 수급권자가 기준중위소득 이상이 되도록 실시한다. 급여의 구체적인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로 구분된다.

근로능력자에 대한 자립·자활 지원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기준중위소득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이 근로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기초생활을 보장받게 됨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건부 생계급여가 도입되었다.

조건부 생계급여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스스로 근로를 하지 않고 있는 자(조건부 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사업 참가를 거부해태한 경우에는 본인의 생계급여를 중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급자 선정기준

가) 소득인정액 제도 시행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폐지되고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하여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제도가 도입되면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는 소득인정액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2-244>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5년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16년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나) 소득인정액 제도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다)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과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

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 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다. 기준이 초과되더라도 보호가 꼭 필요한 세대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를 적용한다.

3) 수급자 신청 및 선정 절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조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주,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는 신청주의 원칙이며, 다만 급여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인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여 조사를 하는 직권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수시 접수하며, 신청서(급여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임대차계약서,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등 소득·재산 관계 서류)를 제출하면 시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 조사 등을 거쳐 선정기준에 따라 30일 이내 보호의무를 결정(시장·군수)한다

4) 수급자 선정 현황

우리 도의 수급자 현황은 도민전체 인구의 4.7%인 88,540명으로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전국에서 전북(4.8%)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2-245> 수급자 현황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60,221	88,540	54,141	82,460	6,080

5)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급여실시

가)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 지원

수급자를 대상으로 총 급여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을 합하여 기준 중위소득 이상이 되도록 급여를 산정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있으며, 생계급여 지급은 가구전체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기준 가구소득의 차액을 보충적 급여로 지급하였다.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29%(4인기준 127만원) 이하인 경우
- (급여내용)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기본적 금품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나) (의료급여) 질병, 부상 등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 지원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4인기준 175만원) 이하인 경우
- (급여내용)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예방·재활, 입원, 간호, 등

다)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수급자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자, 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에게 매월 20일 생계비와 함께 지급하고 있다.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4인기준 182만원) 이하인 경우
- (급여내용)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을 지원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라) (교육급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등을 지원(빈곤대물림 해소)

우리 도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로서 고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지원 외에도 교과서비, 학용품비 등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4인기준 219만원) 이하인 경우
- (급여내용)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등

마) (해산·장제급여) 수급자 중 해산 및 사망 시 보장급여 지원

수급자 중 출산여성에 대해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조리를 위해 출산 후 해산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1인당 600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쌍둥이 출산 시에는 600천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조치에 필요한 금품지원을 위해 장제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가구당 750천원을 지급하였다.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4인기준 188만원) 이하인 경우
- (급여내용) 해산급여는 출산 시 1인당 60만원(쌍둥이 출산 시 총 120만원 지급), 장제급여는 사망자 1구당 75만원

6) 수급자 엄정 관리

가)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주민등록 말소자, 노숙자, 쪽방, 비닐하우스촌 거주자 등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을 복원토록 하여 수급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2001년 8월부터는 주민등록

말소자 등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번호제를 부여하는 내용의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 대책을 시행하여 정신질환 등으로 호적을 알 수 없는 사람도 수급자로 선정·보호하고 있다.

또한, 소득평가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재산 등이 다소 초과되는 일부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해당가구의 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급자로 적극 보호하고 있다. 2015년 11월말 현재 재산 등 특례수급자 현황은 3,416가구 5,114명이다.

나) 정기적인 확인조사

수급자의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자치단체별 연간 조사 계획을 수립 정기·수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소득 및 자산변동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가구 특성별 생활실태를 수시 확인하는 등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소득·재산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체계 구축

수급자 선정·관리 등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보험정보 포함) 조회결과를 적용하였다.

현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국세청(종합소득), 국민연금관리공단(소득 및 연금급여), 행정자치부(지적정보), 고용노동부(실업급여, 실업자대부), 근로복지공단(산재급여, 임금소득)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일괄 전산조회를 실시하여 수급자 자격관리에 적용된다. 또한, 각 부처에서 분산·운영되고 있는 복지사업 정보,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수혜이력을 개인·가구별로 통합·연계한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2012년 11월 개통되었다. 각 부처별 292개의 복지사업이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고 꼭 필요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하는 맞춤형 복지 지원시스템이 제공되고 있다.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확인조사 실시

행복e음 공적자료는 27개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최신자료를 연계 반영하여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자산 조회를 통하여 수급 자격 정지 및 급여를 조정하는 등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국방부, 노동부, 국가보훈처,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에 대한 전산조회를 실시하여 부정한 방법에 의해 급여를 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시·군 생활 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정수급자로 판정하여 2015년도에는 117명 95백만원의 보장비용을 징수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부정수급자를 지속적으로 가려내어 재정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부

사회복지과장 최성진, 생활지원팀장 손선미, 담당자 김 호

나.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

1) 자활사업의 내용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체계적인 자립·자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자리 제공을 통해 스스로 자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 국민이 최저생활보장의 기반 위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각종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탈 빈곤 및 자활 능력 배양을 지원하고 있다.

체계적인 자활사업을 위해 도내 22개 시·군 지역자활센터 등을

통해 민간의 자활역량을 강화하고 참여자의 근로기회 제공과 생업자금
융자, 기초생활보장기금 등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종합
적인 자립 지원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2)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에는 수급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으나, 조건부 수급자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자활사업 특례자·차상위계층·일반수급자 등도
참여할 수 있다.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능력자 중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원받는 수급자를 말하며, 조건제시 유예자는 조건부
수급자 중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단기적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유보할 수 있는 대상자를 말한다.

이들은 도서·벽지수급자, 시험 준비생, 직업 훈련 학원수강생, 북한
이탈주민,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시장·
군수가 결정한 자한 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조건부 수급자 이외에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인 자활
급여 특례자는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성과관리형 자활사업
등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수급자를 말한다.

3) 가구별 자활지원계획과 조건이행여부 확인

가)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읍·면·동
또는 시·군 자활업무담당자는 수급자와 상담을 통해 가구별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는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 능력(연령·건강상태·직업이력)과 자활욕구에 따라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구분된다.

<표2-246> 자활사업 참여현황

(단위 : 명)

계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 등
3,935	1,769	537	210	1,383

취업대상자는 당장 취업이 가능한 자로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의뢰하고 비취업대상자는 자활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근로의욕고취) 및 생업자금융자사업 등에 참여토록 지원하고 있다.

나) 조건 불이행자에 대한 생계급여 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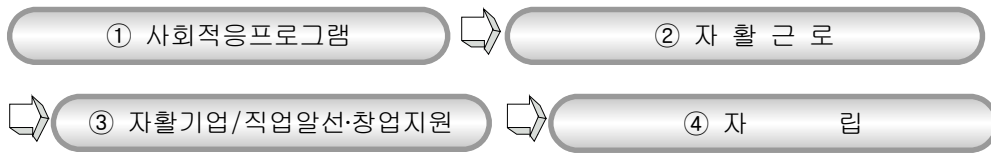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조건이행여부의 확인은 각 자활지원사업 실시 기관에서 정기(3개월)·수시 조사를 통하여 관리한다.

자활지원사업 참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조건이행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간 본인의 생계급여를 중지하게 된다.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계속 급여를 중지한다.

4) 자활지원사업의 참여

자활지원사업은 참가자들의 욕구와 능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자립으로 인도하는 “단계적 발전전략”을 도입하여, 각 단계 참여자는 다음 단계로의 참여를 전제로 하되, 궁극적으로는 자립이라는 단계에 이르도록 유도하고 있다.



5) 다양한 자활프로그램 실시

가)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역자활센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잠재적 빈곤층에게 자활기업, 창업지원 등 자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적극적·예방적 사업을 수행한다.

우리 도에서는 21개 시·군에 소재한 22개소의 지역자활센터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지역자활센터에 대해 자활기업 설립, 자활교육, 작업장 설치 등 수급자의 자활을 지원토록 1개소당 연 148~222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자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표2-247> 지역자활센터 현황

(2015. 12. 기준)

기 관 명	대표자	소재지	운영주체	지 정 연월일	주요 추진사업
목포지역 자활센터	이 준	목포 해안로 173번지 34	광주구 천주교 유지재단	2001.7.1.	집수리사업, 병인도우미, 재활용, 봉제, 경로식당 운영, 놀이터 개보수, 청소, 아동급식, 제과점 사업
여수지역 자활센터	이정민	여수 공화북 1길 8	대한불교 조 계 종	2000.8.24.	간병인, 봉제(천연염색), 지역특산품 음식, 청소용역, 재활용 사업
여수시민 지역 자활센터	오현주	여수 도원로 164-1	사단법인 일복지연대	2001.7.	집수리, 재활용, 영농, 청소, 세탁, 소독방역, 간병, 공부방, 천연염색, 운동화빨래방 사업

제6절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기 관 명	대표자	소재지	운 영 주 체	지 정 연월일	주요 추진사업
순천지역 자활센터	고연주	순천 남제새길 19	사회복지법인 순천성신원	2001.7.1.	집수리, 간병, 영농, 비누 제작, 청소, 운동화 세척
나주지역 자활센터	박철수	나주 오포길 31	학교법인 해인학원	2000.8.24.	도배, 복합영농, 배즙가공, 차량세차, 아름다운가게, 간병
광양지역 자활센터	이재호	광양 광양읍 성북길 47-8	사단법인 희망나눔	2001.7.1.	집수리, 청소, 불판크리닝, 재활용, 휴먼케어 간병, 복지 간병
담양지역 자활센터	이동희	담양 담양읍 추성로 1372	개 인	2003.8.1.	야생화, 복합영농, 도자기, 집수리
곡성지역 자활센터	정영진	곡성 오지3길 50	사회복지법인 곡성 삼강원	2004.4.1.	집수리, 간병가사도우미, 천연염색과 협업 농장
고흥지역 자활센터	송동석	고흥 고흥읍 장전신전길 75	고흥군 사회복지 협의회	2010.12.27.	집수리, 간병도우미, 청소, 재활용
보성지역 자활센터	김성환	보성 벌교읍 낙성리길 6	사회복지법인 백십자원	2004.4.1.	집수리, 영농, 사랑나누기 간병
화순지역 자활센터	김유환	화순 화순읍 중앙로 167	화순군수	2002.12.31.	집수리, 간병인, 영농, 도시락 배달, 천연염색, 나눔자원 재활용
장흥지역 자활센터	위수미	장흥 장흥읍 읍성로 7	사단법인 장흥나눔	2004.4.1.	집수리, 머느리 간병, 향약초, 환경사랑
강진지역 자활센터	문정국	강진 군동면 백금포길 7	사단법인 청자골봉사회	2012.10.10	집수리, 복지 간병, 조리, 폐자원 재활용
해남지역 자활센터	민인기	해남 해남읍 해남로 17	재 단 법 인 해남 YMCA	2004.4.1	집수리, 영농, 가사간병인, 재활용
영암지역 자활센터	이상행	영암 영암읍 영암로 1548	영암사랑 나눔봉사회	2002.7.1.	집수리, 유료 간병, 영농, 친환경식품, 무료간병, 재활용
무안지역 자활센터	박형준	무안 무안읍 불무로 38-7	사단법인 서로나눔	2003.8.1.	집수리, 복지 간병, 황토벽돌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운영주체	지정연월일	주요추진사업
함평지역 자활센터	장성대	함평 함평읍 함평천좌길 12-8	순복음 함평교회	2003.8.1.	집수리, 영농 등
영광지역 자활센터	정기철	영광 영광읍 중앙로4길 7-1	사회복지 법인 난원	2001.7.1.	간병도우미 파견, 모싯잎 재활용, 청소, 재활용, 푸드마켓, 집수리
장성지역 자활센터	박종태	장성 장성읍 영천로 212	한마음 영농조합법인	2004.12.8.	간병, 집수리, 폐자원활용
완도지역 자활센터	김동식	완도 완도읍 장보고대로 322-1	사회복지법인 한기장재단	2004.12.8.	집수리, 청소세차, 간병인
진도지역 자활센터	조재만	진도 진도읍 공설운동장 길 14-8	사회복지법인 두성재단	2001.7.1.	집수리, 간병 도우미, 재가간병, 도시락, 표고버섯재배
신안지역 자활센터	이영희	목포 송림로 73	광주구천주교 유지재단	2004.4.1.	집수리, 복지 간병, 분묘관리, 천일염

나) 자활근로사업

비취업 대상자중 자활의지는 있으나 근로능력이 다소 미흡한 비숙련 계층을 대상으로 근로능력 향상과 상위 자활경로로 진입하는 이전 단계 프로그램이다. 참여자 능력향상을 통해 자활기업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① 근로유지형 ② 사회서비스형 ③ 인턴·도우미형 ④ 시장진입형 등의 자활근로사업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다.

2015년 자활근로사업 실적은 국비와 도비 등 34,307백만원을 투입하여 집수리사업단, 청소사업단, 간병사업단, 재활용사업단 등 219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총 6,098여명이 참여하여 근로능력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였다.

다) 생업자금 융자사업

생업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층의 생업기반 조성과 조기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서 창업을 원하는 개인 또는 자활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20백만원 최고한도(무보증 대출 12백만원, 보증대출 20백만원, 담보대출 50백만원 한도)로 연리 3.0%, 5년거치 5년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거주지 시군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표2-248> 최근 3년간 생업자금 융자실적

(단위 : 가구, 백만원)

2012년		2013년		2014년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4	68	5	74	-	-

라) 자활장려금 사업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과 장애인 직업재활, 그리고 자활기업 참여자, 근로유지형이 아닌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로 수급대상자에게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활자립을 목표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제대상 소득의 일정비율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보다 많은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2015년 국도비 등 749백만원을 지급하였다.

마) 희망키움통장 사업

2010년부터 시작된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촉진을 위해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지원하고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비례한 근로소득장려금과 민간매칭금을 지원하여 목돈의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2011~2012년 가입유지자와 2015년 신규가입자 등 총

1,705가구에 국도비 등 1,997백만원을 지원하여 수급자의 탈빈곤 의지를 고취시켰다.

아울러 2014년 하반기부터는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진원할 수 있도록 차상위까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II)사업을 시행한다.

바) 기금의 설치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의 자활지원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 또는 시·군에 기초생활보장기금(자활기금)을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도 및 시군에 설치·운영되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이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보증인 확보곤란 등으로 용자를 받기 어려웠던 저소득층의 신용보증,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 자금 및 전세점포임대자금 용자 등,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2002년 8월 13일 전라남도사회복지기금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국·도비 출연과 이자수입 등으로 2015년말 현재 9,200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15년말 기준 시·군에서도 기금조례를 제정하고 자체기금 조성에 노력하여 25,507백만원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였다.

또한, 기금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기초수급대상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자율은 고정금리 연 1%, 연체 시 연리 6%로 하였다.



사회복지과장 최성진, 생활지원팀장 손선미, 담당자 김경연

다. 위기가정 긴급지원

1) 긴급지원의 내용

위기상황에 처한 자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 등의 현장 확인(1일 이내)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지원(추가1일 이내-총48시간 이내)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선지원·후결정 제도이다.

2) 긴급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확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및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가 해당되며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5(1인기준1,141천원, 4인기준3,086천원) 이하이며, 재산기준은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며, 금융재산기준은 500만원이하(단, 주거지원은 금융재산 700만원이하)이다.

3) 긴급지원대상자 신청 절차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시·군 사회복지 담당부서에서 가능하며, 2015년부터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최초방문 또는 요청한 곳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도록 원스톱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각 시·군 담당공무원은 현장 확인을 통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4) 긴급지원 지원내용(9종)

- 생계비 지원(최고 6회 가능)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09천원	696천원	901천원	1,185천원	1,310천원	1,514천원

- 의료비 지원 3,000천원(최고 2회 가능)

- 주거 지원(최고 12회 가능)

지역	구성원수	1~2인	3~4인	5~6인
	중소도시	240천원	399천원	527천원
	농 어 촌	138천원	230천원	304천원

-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06천원	864천원	1,117천원	1,370천원	1,624천원	1,878천원

- 교육비 지원(최대 2회 지원)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09천원	333천원	408천원 및 해당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 그 밖의 지원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91천원	60만원	75만원	50만원
지원기준	최고 6회 지원		1회만 지급	

5)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 등을 조사하여 우선 실시한 지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사후조사를 실시하며 시장·군수는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지원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통하여 결정한다.

6) 긴급지원 현황

우리 도의 2015년 긴급지원 현황은 총 10,418가구에 16,603명에게 6,504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세부적인 지원내용으로는 생계비 지원은 6,007가구 10,692명, 3,565백만원, 의료비지원은 1,774가구 1,774명, 2,609백만원, 주거비지원은 244가구 391명, 55백만원, 기타 교육급여, 그 밖의 지원 등은 2,393가구 3,746명, 275백만원 지원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신속히 대처하였다.

추진부

사회복지과장 최성진, 생활지원팀장 손선미, 담당자 김경연

라.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 지원사업은 생활이 어렵고 질병으로 고통 받는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의료비부담 해소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1종(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원,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5·18민주화운동관련자, 이재민, 시설입소자 등)과 2종(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종 수급권자 제외한 수급권자)이 있다.

급여내용으로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고시기준(비급여, 급여)에 따른다.

급여기준 종별 진료비 본인부담은

1종 수급권자는 입원은 본인부담 없으며, 외래의 경우 1차(의원) 1,000원, 2차(병원·종합병원) 1,500원, 3차(지정병원) 2,000원, 약국 500원이다.

- ※ 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 ①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166개 질환)
 - ②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 ③ 선택의료기관 이용자
 - ④ 20세이하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 1종 : 재학증명서 제출
 - ⑤ 임산부 : 임신임을 신고한 날 ~ 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
 - ⑥ 가정간호대상자 : 가정간호 진료대상 확인서, 진단서 첨부

2종 수급권자는 입원은 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본인부담하고, 외래의 경우 1차(의원) 1,000원, 2차(병원·종합병원) 15%, 3차(지정병원) 15%, 약국 500원이다.

- ※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특례
 - ① 중증질환자 중 뇌혈관·심장질환자(입원) : 본인부담없음(수술을 포함한 입원기간 최대 30일)
 - ② 자연분만 산모(입원) : 본인부담 없음
 - ③ 6세미만 아동(입원) : 본인부담 없음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본인부담 없음(1,2종)

의료급여 진료비용의 예탁 및 지급은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에 의거 조성된 기금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 결정하고 매월 20일까지 건강보험공단 지정 계좌 예탁한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대상은 1종 수급권자(단, 본인부담금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로 매월 1일 6,000원(1인당)-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사용잔액은 매년 말일까지 정산하여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조치하고 있다.

- ※ 1차(의원)1,000원, 2차(병원·종합병원)1,500원,
3차(지정병원) 2,000원, 약국 500원

임신·출산진료비의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로 지원 결정된 날부터 ~ 출산 예정일 + 60일까지이며, 50만원(기간 내 미사용 분은 소멸)을 지급하며 산부인과 병·의원, 보건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사용범위 : 입원, 외래의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대지급금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금에서 대불하고 있다.

※ 상환방법 : 3년 이내에 3개월 간격으로 무이자 상환

본인부담 환급금은 수급자가 이미 납부한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과다한 경우 다시 수급자에게 환급해주고 있다.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 등 79종을 지원하며 1종은 기준액(또는 실구매액) 전액을, 2종은 85% 지원(15%는 장애인 의료비에서 지원)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는 수급권자에게 건강정보 제공, 자원연계 등 의료욕구에 신속히 대응, 의료이용 행태 변화 유도 및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 도모를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4개군(장기입원군, 고위험군, 집중관리군, 신규군)으로 대상을 분류하여 의료급여관리사 1인당 300명을 방문, 전화, 서신, 집합교육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 기간 : 장기입원자 6개월, 고위험군 3개월, 집중관리군 12개월, 신규군 1개월

도내 의료급여수급자는 88천명으로 1종이 65천명, 2종이 23천명이다.

추진부

사회복지과장 최성진, 생활지원팀장 손선미, 담당자 이복례

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칙적으로는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100이하 가구가 지원대상이나 일부 사업에 대해 예외기준이 적용된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1,538천원	3,099천원	4,423천원	4,974천원	5,265천원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1,846천원	3,719천원	5,308천원	5,969천원	6,318천원

2015년 6월 메르스 여파와 국비 일부 미송금 및 사업기간 1개월 단축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아동정서발달서비스, 노인 맞춤형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46개 세부사업에 17,869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32회 실시하여 제공기관 업무 질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해 지침교육, 시스템 교육 등을 연 4회 추진하였다.

특히, 서비스 제공인력의 정서함양을 위한 “쉽 프로그램”을 3회 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제공인력의 자존감 향상에 기여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홍보와 정보제공을 위해 전남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누리집을 구축하여 제공기관 및 이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선

1)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희망복지지원단은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자원 및 방문형 서비스사업들을 총괄 관리함으로써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으로 2012년 4월부터 시·군의 계(팀)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말 22시·군 희망복지지원단에 65명의 사례관리사를 포함하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2)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통합사례관리사는 시·군의 희망복지지원단에 배치되어 통합사례관리를 전담 수행하는 인력으로 도내 총 65명의 전문인력을 채용 운영하였다. 이들은 지역자원 서비스 발굴·연계, 사례관리대상 가구의 욕구조사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서비스자원 연계 의뢰 및 제공 여부 지속적 점검, 취약계층 발굴 및 위기가구에 대한 종합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사회복지인력 확충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신규 사회복지직 358명과 행정직 재배치 및 결원대체인력 221명 등 총 579명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였고, 2015년말 현재 신규복지직 48명, 행정직 재배치 37명 등 총 85명을 확충하였다.

<표2-249> 연도별 사회복지인력 확충 계획

(단위 : 명)

구분	합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신규 복지직	행정직 재배치등	신규 복지직	행정직 재배치등	신규 복지직	행정직 재배치등	신규 복지직	행정직 재배치등	신규 복지직	행정직 재배치등
인원	358	221	122	98	67	54	121	32	48	37

추진부

사회복지과장 최성진, 지역복지팀장 이장범, 담당자 남주희, 이정희

사.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를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노숙인을 입소 보호하고 각종 자활 지원을 위한 시설로 7개소에 763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119명, 시설운영·관리비 및 개보수 등을 위하여 연간 5,058백만원을 지원하였다.

- 입소 대상자 : 무연고나 연고가 있어도 보호할 능력이 없는 18세 이상인 자

<표2-250> 노숙인시설 운영 등 지원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연도별	수용인원	종사자	예산액	증감(예산액)
2007	829	92	3,536	9.5
2008	820	94	3,583	1.3
2009	815	97	4,396	22.7
2010	803	96	3,706	△15.7
2011	795	108	5,582	50.6
2012	792	112	4,697	△15.8
2013	759	116	4,623	△1.57
2014	763	119	6,593	42.6
2015	763	119	5,058	△23.3



사회복지과장 최성진, 복지정책팀장 전광호, 담당자 김하경

1-2. 저출산 극복대책 추진

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2015년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여 도내 농어촌 지역 산모의 편안한 산후조리를 돕고자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쾌적한 산후조리 10실과 다양한 산모의 힐링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외부 감염으로부터 산모와 아기의 안전을 위해 모자 동실 운영과 신생아실 공기 멸균기, 에어샤워부스 설치로 감염을 차단하였으며, 특히, 취약계층의 출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정, 3자녀 이상 산모, 장애인 산모 등을 대상으로 산후조리원 비용 7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전남의 합계출산율 1위 유지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출산장려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추진부

사회복지과장 최성진, 지역복지팀장 이장범, 담당자 서미애

나. 신생아양육비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생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아 1인당 양육비 30만원(도비 15만원, 시군비 15만원)을 지원해 드림으로써 출산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단, 쌍태아인 경우 태아별로 1인당 30만씩 지원함).

추진부

사회복지과장 최성진, 지역복지팀장 이장범, 담당자 서미애

다. 영유아 예방·치료 지원

○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국가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여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접종률을 향상시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퇴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등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반을 구성 운영하였다.

특히, 신생아의 B형간염 수직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표면항원 양성 산모의 신생아 1,495명을 등록하여 면역글로블린 접종과 3차에 걸친 추가접종 및 무료검사를 시행하여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였다.

<표2-251> 어린이 예방접종 실적

(단위 : 명)

계	디티에이피	폴리오	엠엠알	B형간염
215,594	76,260	60,917	30,174	48,243

추진부

보건의료과장 강영구, 질병관리팀장 황두현, 담당자 허유량

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및 난임부부 등 모자 보건

2006년부터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친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표2-252> 산모·신생아 정부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

(기준 : 2015년, 단위 : 천원)

구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서비스 기간	총금액	정부 지원액	본인 부담금	비고
단태아	40~50%이하	2주(12일)	최대 800천원	561	서비스가격과 정부지원금차액	
	40%이하			594		

※ 쌍태아 3주(18일)최대 1,500천원, 심태아이상·중증장애인산모 4주(24일) 최대 2,200천원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3회) 의료 시술비 지원하고, 특히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돕고 있다.

추진부 사회복지과장 최성진, 지역복지팀장 이장범, 담당자 서미애

마. 분만취약지 전문의료서비스 강화

「보건의료기본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역에 분만·외래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설치하여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 안정적인 분만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전남도는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의료취약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만 실시하였고, 2014년부터는 외래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취약지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실시하고 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총 7개소 분만(3개소)·외래(3개소)·소아청소년과(1개소)를 설치하였고, 시설 장비비 등 2,35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그간 추진실적은 분만 200명, 외래 산부인과 8,942명, 소아청소년과 5,150명 사업추진을 하였다.

<표2-253> 분만·외래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설치현황

구 분 \ 연도별	2011	2013	2014	2015
분만산부인과	강진의료원	고흥종합병원	영광종합병원	영광종합병원
외래산부인과			진도한국병원 완도대성병원	보성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완도대성병원	완도대성병원

추진부 보건의료과장 강영구, 공공보건팀장 조상훈, 담당자 이남희

1-3.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가. 기초연금 지원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노인의 빈곤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유지에 기여하였다.

2015년 지급액은 노인 단독인 경우 월 2~20.26만원, 노인부부인 경우 월 4~32.42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사업비는 7,416억원으로 321천명을 지원하였다.

<표2-254> 연도별 기초(노령)연금 수급인원

연도별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급 자(천명)	296	302	306	310	314	319

나. 노인사회활동(일자리)지원사업 확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전남 현실에 맞는 맞춤형 노인일자리에 462억원을 투입하여 512개 사업에 23,280자리를 마련하여 전년(2014년)보다 41억원 2,777자리를 도내 노인들에게 확대 제공하였다.

복지 사각지대 노인들을 위해 거동불편노인 돌봄지원사업(노노케어)을 더욱 확대하였으며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보육교사 도우미, CCTV 상시관제사업, 노인 자살예방사업, 경증치매 노인활동보조사업, 취약계층 활동지원사업 등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해 전략사업으로 육성, 노인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특히, 9월 4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노인일자리사업 평가대회에서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을 수상

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3년(2012~2014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표2-255> 연도별 사업현황

구 분	사업량 (자리)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2012년	16,523	25,747 (100%)	12,874 (50%)	6,441 (25%)	6,432 (25%)	
2013년	17,500	34,254 (100%)	17,127 (50%)	8,569 (25%)	8,558 (25%)	
2014년	20,503	42,055 (100%)	21,027 (50%)	10,518 (25%)	10,509 (25%)	
2015년	23,280	46,161 (100%)	23,081 (50%)	9,238 (25%)	13,842 (25%)	

추진부

노인장애인과장 김영권, 노인복지팀장 김태환, 담당자 서미애, 김재근

다.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

경로당에 노인들이 모여 공동작업, 노인건강운동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8,755개소에 대해 11,453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시군관리자를 1시군당 1명씩 배치하여 경로당 운영프로그램조사, 이용노인 욕구분석 등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양곡비로 16,857백만원 투입하였고, 함평에 5,900백만원을 투입하여 노인복지관을 설립하여 올 8월에 준공, 운영하고 있으며, 장흥에도 4,19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건립 중에 있다.

2015년 경로당 특별운영비 지급내역

- 난방비 : 13,132백만원(국비 6,566, 도비 1,576, 시군비 4,990)
- 냉방비 : 876백만원(국비 481, 도비 95, 시군비 300)
- 양곡비 : 2,849백만원(국비 1,424, 도비 342, 시군비 1,083)

또한 경로당 광역지역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경로당 복지서비스 관리체계를 구축, 경로당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및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 센터현황 : 1개소(무안군 삼향읍 소재), 301백만원
- 직 원 수 : 6명(센터장1, 직원 5)

추진부

노인장애인과장 김영권, 노인시설팀장 박건주, 담당자 장수훈

라.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

의료·복지혜택이 취약한 면단위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 공중목욕장을 운영하였다.

도내 114개소의 공중목욕장에 개소당 20백만원씩 총 2,28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중목욕장 운영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도내 목포시와 구례군을 제외한 20개 시군에 설치된 농어촌 공중목욕장운영에 대해 나주시, 보성군, 장흥군을 제외한 17개 시군이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조례를 제정하였다.

2015년 기준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누적인원 148천명이 참여하였으며 공중목욕장 이용인원은 869천명으로 해당 농어촌 지역 노인인구수가 평균 6.6회 이용하였다.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각 시군 보건소에서 프로그램 관리자를 채용하여 건강체조, 요가, 근력운동, 라인댄스 등 주 1회~3회까지 공중목욕장 개장일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추진부

노인장애인과장 김영권, 노인복지팀장 김태환, 담당자 박윤수

마.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요양보호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요양시설 및 요양공동생활에 입소하거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요양시설 및 요양공동생활과 재가복지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의 장기요양보험부담금 52,213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41개소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56,083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출하였다.

추진부

노인장애인과장 김영권, 노인시설팀장 박건주, 담당자 고희경

바.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2014년 말 노인인구 대비 독거노인 비율이 30.6%를 초과하여 독거노인 보호사업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 졌다. 도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969명이 24천명의 독거노인 안전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등급의 A,B자 5,000여명에게 종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 취약노인가구 13,956세대에 응급안전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또한, 2015년에는 “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추진부

노인장애인과장 김영권, 노인복지팀장 김태환, 담당자 서미애

사.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원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839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노인학대 신고 건수 623건에 대하여 4,815회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신고의무자 171명에게 6119회, 비신고의무자 346명에게 18,711회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서는 24명의 학대피해 노인을 보호조치하였다.

┌ 전남노인보호전문기관(순천) - 동부권 11시군 관할

└ 전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목포) - 서부권 11시군 관할

추진부

노인장애인과장 김영권, 노인복지팀장 김태환, 담당자 서미애

아. 노인생활 및 재가시설 운영 지원

저소득 노인의 주거, 급식 등 일상생활의 편의제공을 위해 양로시설 9개소에 운영비로 4,913백만원을,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등급외자 보호를 위해 요양시설 및 요양공동생활 281개소에 운영비 등으로 31등 노인생활시설 300개소에 운영비 등으로 32,184백만원을, 재가복지시설 616개소에 시설운영비 등 24,273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시군의 노인성질환,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3개소 3,839백만원을 확보하여 증개축 6개소 3,343백만원, 개보수 4개소 176백만원, 장비보강 3개소 32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자동개폐장치 203개소 163백만원을 지원하여 소방안전을 강화하였다.

추진부

노인장애인과장 김영권, 노인시설팀장 박건주, 담당자 고희경

자. 노인 공동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초고령사회 진입(2014.8.)에 따라 노인 공동생활시설 설치 운영 필요성이 대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생활여건 개선으로 농어촌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2014~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서 공동생활홈 10개소, 공동급식시설 6개소, 공중목욕탕 2개소 등이 선정되었으며, 도비 자체적으로 매년 3개소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도에서는 149개소 설치하여 926명이 이용하고 있다.

※ 홀로 사는 노인 현황(2014. 12월말 기준) : 117,503명
(남 28,013, 여 89,490)

공동생활시설 유형으로는 공동거주형과 독립거주형으로 나누어 운영을 하고 있으며, 공동거주형은 기존 경로당을 활용하여 낮에는 경로당 밤에는 주거공간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며, 독립거주형은 개별적 주거시설(원룸형)이며 저소득 독거노인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거주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전남도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의 소외감과 외로움 해소로 고독사 예방 및 주거·위생·안전 등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한 노후 생활에 기여토록 의료·문화·교육·여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노인의 복지욕구 충족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추진부

노인장애인과장 김영권, 노인시설팀장 박건주, 담당자 장수훈

차.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

전남이 전국에서 화장률(69.2%)이 가장 낮고, 매장 위주의 뿌리 깊은 전통적 장사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

하고 화장문화로의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도민 의식개혁을 위하여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시군 공무원,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장사문화 개선 시군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

매장중심의 장사관행을 화장문화로 전환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장사시설의 현대화 사업이 필수적인 과제로서 2006년도부터 시군에 봉안당 시설, 화장장설치, 자연장 조성 등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 추진하였다.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조성된 집단분묘로 인한 국토훼손 및 과도한 석물사용과 호화분묘 설치 등으로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2009년에는 시범사업인 친환경 자연장 조성 사업으로 담양군 등 7개소에 1.6억원, 묘지경관 조성사업으로 나주시 등 10개소에 0.7억원 등 총 2.3억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자연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순천시 등 15개소에 1.8억원, 2011년에는 순천시 등 10개소에 0.9억원, 2012년에는 고흥군 등 28개소에 2.5억원, 2013년에는 고흥군 등 29개소 2.8억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자연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앞으로는 기존의 묘지, 봉안시설이 국토잠식 및 자연경관 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친환경적인 장사방법으로 수목장 등 자연장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자연장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5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도는 향후 친환경적인 자연장제도 도입 및 화장문화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장사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카.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추진

어르신들께서 마음껏 냉·난방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올해 50개소를 시범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91%라는 만족도를 보여, 2018년 까지 36억원을 투입하여

400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사업대상 선정기준으로는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으로 설치·운영 중인 경로당을 최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설치하였으며, 주택용으로 환산 계산 시 월평균 전기요금 5~10만원 이거나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50~450kw인 경로당, 월평균 전기요금 10만원이상, 월평균 전기사용량 450kw 초과 경로당 중 누진세 적용 우려가 없는 경로당, 전기요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옥상 활용 가능여부, 지붕 소재, 건물 노후도, 마을 협조 등 종합 판단하여 대상지 최종 선정될 전기료 부과 금액이 많은 곳을 최우선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 공동생활 홈 지정현황 : 149개소(농식품부 10, 도 44, 시군 95)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어르신들께서 전기요금 걱정없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차질없이 연차 별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

노인장애인과장 김영권, 노인시설팀장 박건주, 담당자 장수훈

1-4. 장애인 생활안정 및 활동지원 강화

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일자리사업 추진

도내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상실된 소득보전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 장애(아동)수당, 의료비, 자녀학비 등 4개 분야 총 69,065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였다. 특히 장애인연금은 수급권자가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통·리·반장을 통한 개별접촉 등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하여 2015년에는 우리 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78.12%의 수급률을 보였다.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장애인 일자리 분야는 주차단속요원, 건강도우미 등으로 950명이 활동하였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복지업무 수행 보조를 위하여 304명이 근무하였으며, 전문분야로 시각장애인이 경로당 노인들에게 안마 기술을 실시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발달장애인이 식사 도와드리기, 이동 도와드리기 등 요양보호사 업무를 보조하는 활동을 하였다.

추진부

노인장애인과장 김영권, 장애인복지팀장 진 미, 담당자 임선화

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복지시설 운영지원

도내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18개소에 연간 761백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촉진과 기술지원·상담·홍보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장애인 이동편의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병원, 음식점 등 3천 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가 담긴 모바일 앱 및

픽토그램 안내도를 개발·보급하고,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지원하였다. 시각, 청각언어, 지체, 중증, 지적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33개의 생활시설이 있으며 생활인원은 1,186명, 종사자는 581명이다. 또한 운영 및 시설 기능보장을 위해 연간 25,144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재가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시설에서는 장애인 자립지원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복지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관 16개소, 주간 보호시설 24개소, 직업재활시설 17개소, 생활이동지원센터 13개소, 수화통역센터 17개소 등의 운영을 위해 24,228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 복지관 3개소, 직업재활시설 4개소,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1개소, 인권침해피해장애인쉼터 1개소 등 장애유형에 맞는 시설을 확충하였다.

추진부

노인장애인과장 김영권, 장애인복지팀장 진미, 담당자 이현숙, 이민희, 고경희

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강화

우리 도에서 전국 최초로 2006년에 설치한 전남장애인인권센터에 연간 343백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침해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장애인 권익증진을 강화한 5개년(2016~2020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장애인시설 내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지킴이단을 전면 재구성하고,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를 일제 조사하였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인권침해 장애인을 위한 쉼터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인권침해 발생에 대비하여 대처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였다.

추진부

노인장애인과장 김영권, 장애인복지팀장 진미, 담당자 고경희, 이현숙

2. 보건 의료 기능 강화 및 의료산업 육성

2-1.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대

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1994년부터 농어촌특별세를 이용하여 농어촌지역 보건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차량 등 기능보강을 통해 농어촌지역 보건 의료 인프라 확충 및 보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다.

<표2-256>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97~'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	876,064	273,103	56,942	57,292	62,054	67,536	62,503	62,503	58,931	87,716	87,484	86,050	74,185
전남	176,801	51,946	11,462	14,089	15,010	11,913	11,580	13,896	18,415	15,675	12,815	13,646	24,019
비율 (%)	20.2	19.0	17.2	20.1	24.6	24.2	17.6	18.5	31.2	17.8	14.7	15.8	32.3

지역보건 의료기관 시설 개선 사업으로 총 30개소의 공공보건 기관(보건소 5, 보건지소 16, 보건진료소 8, 건강생활지원센터 1)을 신·증축 또는 개보수하였다. 특히 섬지역 신속한 응급 의료 서비스를 위한 거점 보건지소 4개소를 신축하였다.

장비보강 사업은 의료장비 143개소(보건소 19, 보건지소 81, 보건진료소 43), 보건사업용 차량 8개 보건소에 10대를 지원하였다.



보건 의료과장 강영구, 공공보건팀장 조상훈, 담당자 백애영

나. 섬 지역 건강지킴이 병원선 운영

도내에는 전국 도서의 65%인 2,219개 도서가 소재하고 있으며, 그 중 296개 도서에 83,582가구 182,284명이 상주하고 있다. 296개 유인도서 중에는 보건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가 135개소로 보건의료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어서 병원선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목포(84개 도서)권과 여수(76개 도서)권 등 2개 권역으로 나누어 무의도서는 연 4회, 보건진료소만 소재하고 있는 25개 도서는 연 1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표2-257> 병원선 현황

구분(진료권역)	톤 수	눓 트	마력수	건조비(억원)	비 고
전남 511호(여수권)	128	15	3,270	21	
전남 512호(목포권)	170	16	5,400	45	

<표2-258> 무의도서 순회진료 실적

(단위 : 명)

선박별	구 분	진료대상도서	진 료 실 적		비 고
			실 인 원	연 인 원	
병 원 선		160	10,021	17,639	

무의도서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149개 무의도서에 20백만원의 예산으로 해열제, 진통제, 외상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 10종으로 구성된 상비의약품 305상자를 지원하였다.

문화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농산어촌 및 도서 지역 등 문화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인 ‘춤 마실 고고’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연계하여 12개 도서 195명의 섬 주민들의 문화향유 격차 해소와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였다.

섬 주민 대부분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역할상실, 소외감, 인지기능장애 치유와 함께, 치매,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재능이 있는 개인 및 단체의 재능기부를 받아 2개 도서 190명의 섬 주민들에게 국악공연, 웃음치료 등을 병행 실시하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추진부

보건의료과장 강영구, 공공보건팀장 조상훈, 담당자 김의중

다. 은퇴의사 활용 행복의원 운영

최근 의사인력의 도시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심화, 의과 대학 여학생 비율 증가 등으로 공공보건의료 인력이 감소됨에 따라 놓여촌, 섬 등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문제되고 있다.

우리 도에서는 풍부한 진료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은퇴의사 중 사회 봉사 의지가 있는 의사가 의료취약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함으로써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은퇴의사의 ‘행복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행복의원은 지난 2011년 10월에 개원한 완도 노화보건지소 내 ‘행복의원’을 시작으로 2014년 3월에 개원한 신안군 신의보건지소에 ‘행복의원’ 등 총 2개소에 행복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환자 진료, 예방접종 예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행복의원 운영 은퇴의사 현황 >

- 『행복의원』 1호(정우남 72세, 소아과전문의)
 - 전남대 의과대학 졸업(1969.2.)
 - 미국 뉴저지주·버지니아주·텍사스주에서 소아과·가정의학과 개업(35년)
- 『행복의원』 2호(박준일 69세, 내과전문의)
 - 연세대 의과대학 졸업(1970.2.)
 - 미국 휴스턴에서 클리닉 개업(38년)

향후에도 우리 도에서는 의료인 협회단체와 협력을 통하여 은퇴 의사를 지속 확보하여 행복의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추진부

보건의료과장 강영구, 공공보건팀장 조상훈, 담당자 문권욱

라. 응급의료 기반 확충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39개소와 취약지 의료기관 3개소에 응급실 전담 의료인력 인건비 등으로 5,90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섬지역 응급의료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거점보건지소 4개소(가거도, 홍도, 하의도, 암태도) 신축을 추진하였다.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도서·산간 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위해 100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8개 도서에 헬기 착륙장을 설치하였고,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 헬기)로 230여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하였다. 농어촌 취약지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광주권(전남대학교병원)과 서부권(목포한국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2개소, 취약지 10개 시군 14개 병원 간에 응급 원격 협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동부권의 중증응급환자 치료 및 재난거점병원 역할을 하게 될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성가롤로병원이 선정되었다.

추진부

보건의료과장 강영구, 의약관리팀장 강미정, 담당자 손성일

마. 지방의료원 경쟁력 강화

의료서비스의 대부분을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의료자원의 지역 편중화, 의료기관간의 연계 부족과 기능 중복, 서비스의 단편성 등의 문제점이 지속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도민의

의료 접근성을 약화시키고, 비용대비 수익이 적은 기피 진료과가 생겨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역특성에 기반한 병원의 역할정립, 시설·장비·인력 확충 및 운영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의료원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건물이 노후 되어 외부경관이 열악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하거나 불편한 의료원에 대한 환경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의료원별로 진단 및 검사장비 등 주요 의료장비를 현대화하여 환자 진료수요 및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지방의료원이 우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 등이 의사인력 파견 시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경쟁력 확보와 환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의료기관간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 의료기관과 차별되는 응급의료서비스, 재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접근성 제고 등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2-259> 2015년 지방의료원 지원사업 예산

구 분	사 업 명	금액	비 고
순 천 의료원	소계	2,495	
	• 공공진료차액보전금	200	도비 100%
	• 수술대 등 의료장비 6종	200	국비 50%, 도비 50%
	• 감염병 격리 병상 확충	2,000	국비 50%, 도비 50%
	• 파견 의사 인건비 지원	95	국비 50%, 자비 50%
강 진 의료원	소계	1,957	
	• 공공진료차액보전금	200	도비 100%
	• 심장모니터 등 의료장비 7종	400	국비 50%, 도비 50%
	• 분만취약지역사업	500	국비 50%, 도비 30%, 군비 20%
	• 파견 의사 인건비 지원	200	국비 50%, 자비 50%
• 정보화 지원	657	국비 50%, 도비 50%	
목포시 의료원	소계	198	
	• 파견 의사 인건비 지원	75	국비 50%, 자비 50%
	• 공공보건프로그램 운영	20	국비 100%
	• 찾아가는 산부인과	103	도비 100%

추진부

보건의료과장 강영구, 공공보건팀장 조상훈, 0담당자 문권옥

2-2.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가.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질병 매개체인 월동 위생해충 및 병원체 구제로 감염병 발생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 3월과 4월에 하수구, 쓰레기장, 가축사육장 등 방역취약지역 11,476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일제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4~5월에는 2주 1회 이상, 6~9월에는 주 1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였다. 특히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 위주의 환경친화적 방역소독으로 방역효과를 한층 더 높였다.

감염병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역학조사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하였고, 병·의원, 약국, 집단급식소 관리자, 학교 보건교사, 통반·리장 등 3,319명의 질병 정보 모니터망을 구성 운영하고, 과거 2년 동안의 환자 또는 보균자 및 최근 5년간 장티푸스 유행지역 및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사업을 실시하고 설사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및 가검물 검사를 실시하였다.

비브리오패혈증 예방관리를 위해 해수, 어패류에 대한 비브리오 패혈증원인균(*Vibrio vulnificus*) 검사를 실시하였고, 비브리오패혈증에 감염되기 쉬운 간질환자 등 고위험군 환자를 중심으로 가정방문 교육 등 홍보를 강화하였다. 5월부터 9월까지는 주 2회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실시하여 일본뇌염 주의보(2015. 4. 7.)와 경보(2015. 8. 6.) 발령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으며, 레지오넬라 예방을 위해 대형호텔, 병원, 극장, 사무용 빌딩 등 냉각기 가동 건물 207개소의 냉각탑수 등 593건의 검사를 실시하여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49개소에 대해 살균 소독 및 청소를 실시한 후 사용토록 조치하였다.

추진부

보건의료과장 강영구, 질병관리팀장 황두현, 담당자 김원익, 김대준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표2-260> 2015년 주요 감염병 발생현황

(단위 : 명)

제 1 군				제 2 군						제 3 군						제 4 군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파상풍	백일해	홍역	유행성출혈열	풍진	수두	일본뇌염	말라리아	쯔쯔가시시	쯔쯔무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비브리오패혈증	발진열	브루셀라증	성홍열	레지오넬라증	덴기열	SFTS	MERS
14	5	2	6	69	3	9	2	1,333	3	2,255	1	4	1,828	22	64	6	1	1	301	1	6	1	1	1

※ 감염병별 발생수는 미확정 잠정통계임

취약계층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으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방접종기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예방접종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읍면사무소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이용하여 장티푸스, 신증후군 출혈열,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등 예방접종 대상자 명단 작성으로 접종 누락자를 예방하고, 무료접종대상자 이외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유료 접종을 적극 유도하였다.

<표2-261> 성인 예방접종 실적

(단위 : 명)

계	장티푸스	신증후군 출혈열	노인 인플루엔자	노인 폐렴구균	비고
399,379	2,751	31,355	320,686	44,587	



보건의료과장 강영구, 질병관리팀장 황두현, 담당자 허유량

나. 취약계층 건강검진 지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생애주기별, 성별, 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 말 현재 2,471백만원을 확보하여 총 369천명을 대상으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 노인 검진, 암조기 검진 사업을 실시하였다.

<검진대상>

- ▶ 생애전환기 : 만 15~18세 비취학청소년, 만40세·66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 영유아 : 만 6세 미만 영유아
- ▶ 일반검진 : 의료급여수급권자 만19세~만39세 세대주, 만41세~만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 ▶ 노인검진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 암조기검진 : 의료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중 하위 50%(30세 이상)

또한 검진을 향상을 위해 수검 실적 관리(분기별)로 미수검자를 발굴 독려 하고 시군, 보험공단, 검진기관 등 지역사회 협조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검진 후에는 유소견자가 의료기관 치료와 함께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런 결과로 암검진 수검률 부문 정부합동평가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2-262> 취약계층 검진사업 실적

(단위 : 명)

구분	검진 실적					
	계	영유아	의료수급권자	생애전환기	노인 건강진단	암조기검진
2012년	441,355	1,559	7,793	1,231	4,236	426,536
2013년	478,203	1,608	7,781	1,437	4,272	463,105
2014년	419,766	1,450	8,645	1,276	2,597	405,798

추진부

보건의료과장 강영구, 건강증진팀장 박숙경, 담당자 문선희, 박준영

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소득증가와 생활환경 변화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짐에 따라 건강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요 또한 다양화 되고 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해서 2013년부터 기존 중앙정부 주도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추어 지자체 계획에 기반한 다양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보건, 심뇌혈관예방관리, 한의약건강증진, 아토피천식예방, 여성어린이특화, 치매, 지역사회중심재활, 방문건강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의 건강문제, 여건, 주민건강향상도 등을 분석하여 지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건강 문제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함과 동시에 사업운영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매년 지자체별 사업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효과를 측정하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건소가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하도록 문제점에 대한 사업 개선 환류,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대한 체감도 등을 향상시켜 건강 100세 장수시대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장기적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HP2020)달성에 최종 목표를 두고 있다.

1) 분야별 추진 실적

가) 영양분야

개인의 다양한 식습관과 사회 환경변화로 인해 각종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만성질환에 의한 사회경제적 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2차년도(2014년)조사에 따르면 총 에너지 섭취량 중 지방으로 섭취하는 에너지 섭취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1998년 17.9% → 2014년 21.6%)하고 있고 나트륨 섭취가 감소하고 있으나 목표섭취량(2,000mg)이상 섭취자는 여전히 8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칼슘은 권장섭취량 대비 섭취분율이 감소하여(2013년 대비 3%P) 4명 중 3명은 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여전히 아침식사 결식률은 24.1%로 높고, 영양표시 이용률이나 영양교육, 상담경험률은 각각 26.4%, 7.9%로 매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회 이상 외식률은 2008년(24.2%)에 비해 2014년 32.4%로 1.5배 증가하는 등 식생활 평가결과 평균점수가 59점으로 사회변화에 따른 건강식생활실천이 여전히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 도는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수명 증가를 위한 최적의 영양상태, 식습관개선을 통한 적절한 영양관리와 영양교육, 의식개선을 통한 균형잡힌 식생활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만성질환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영양분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보건소 중심으로 영양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 4,375명을 대상으로 1,76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일상적인 식사만으로 부족하기 쉬운 영양식품을 지원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을 운영하여 빈혈, 저체중·영양불량으로 인한 영유아 성장부진 등의 건강 위험요인을 최소화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나) 금연분야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시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 흡연시작 연령 또한 점차 낮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흡연은 암,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구강질환 등 질병발생의 주요요인으로 건강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에서는 범정부 금연종합대책(2014.9.11.)을 발표하여 금연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음식점 금연구역을 201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더불어 흡연석 특례기간 종료로 음식점(커피숍 포함)에도 흡연석을 설치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우리 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4항에 따라 깨끗한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46,89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2015년 4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라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과태료부과)에 대한 시·군별 과태료 부과기준(시단위 2~5만원, 군단위 2~3만원)을 별도로 마련하여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등 4,955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였다.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구역 표시 지정 및 금연구역 내 흡연 예방을 위해 정부·도·시·군 합동으로 금연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자 99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금연정책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4개 금연대학(국립목포대, 국립순천대, 세한대, 전남대여수 캠퍼스)선정하여 대학생 190명 금연서포터즈들의 금연활동 전개를 통한 담배연기 없는 클린캠퍼스 조성,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대학생 금연 발대식(2015. 5월) 등 대학 내 금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22개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에 2,136명을 등록·관리하여 금연교육, 상담 등을 펼쳤다.

다) 신체활동 분야

신체활동사업은 지역주민에게 기능적인 제한을 줄이고 활동적인 삶을 영위토록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은 심장질환, 당뇨, 일부 암, 고혈압 발병 및 이들

질환에 의한 사망의 위험성을 낮춰 주며 또한 비만과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되므로 우리 도에서는 모든 연령에서 탁월한 건강 효과를 누리도록 건강지도자 571명 육성하여 노르딕을 활용한 숲길 걷기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소별 1,999개소 373천명 대상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동구밖길, 산책로, 해안로 등 걷기코스를 조성·개발하여 전 도민 788천명이 참여토록 걷기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매년 건강증진 신체활동 경연대회(15년 10월)를 개최, 22개 보건소팀 600여명 어르신들이 참석하여 건강체조,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기공체조, 라인댄스 등을 펼쳐 건강한 신체활동 나이를 되찾는 기회도 가졌다.

추진부

보건의료과장 강영구, 건강증진팀장 박숙경, 담당자 김경화

라.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 추진

도내 추정 중증정신질환자수는 약 2만여명이며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스트레스의 증가로 정신건강문제를 호소하는 인구는 점차 늘고 있다.

우리 도에서는 정신건강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해 2014년 10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여 전 도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해 가고 있으며, 지역 내 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16개 시군에 기초정신건강 증진센터를 설치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또한 다양한 대상군에 대한 정신질환을 예방하고자 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 사업을 각각 9개, 14개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다.

각 센터에서는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사례관리, 상담서비스 등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며 생애주기별 교육을 통해 도민의 정신건강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5년 3월부터는 3자 통화시스템 구축으로 자살시도자에 대한 신속한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4시간 정신건강 위기 상담을 실시하여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자살예방사업 예산확보와 전문인력 배치 등으로 우리 도 자살률은 2010년 인구 십만명당 33.9명에서 2014년 29.4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추진부

보건의료과장 강영구, 건강증진팀장 박숙경, 담당자 황규연

마. 지역사회 치매예방·관리

도내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치매노인 환자는 노인의 11.1%인 약 43천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5년도는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재가 치매노인 등록 20,356명, 치매조기검진(선별, 진단, 감별검사) 73,990명, 예방교육 30,686명, 치매상담 51,042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4천명의 치매 환자 치료관리를 위한 지원금을 매달 3만원씩 지원하는 등 가족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해소에도 노력하였다.

한편, 입원한 필요한 치매노인을 위해 도내 12개 공립노인치매 전문병원의 시설 장비를 지속 확충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병상을 확충하는 영광 소재 공립노인치매전문병원 1개소에 국도비 6억원을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종합적인 치매관리를 위해 2015년 10월 광역치매센터를 개소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2개 시군 치매상담센터와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인지 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 우리 도의 치매예방과 관리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추진부

보건의료과장 강영구, 건강증진팀장 박숙경, 담당자 박보서

바. 급·만성 감염병 및 신종감염병 대응관리

1) 급성 감염병관리

지구 온난화, 외식 및 단체 급식기회의 증가, 식품의 대량생산 유통 소비, 교통수단의 발달로 신종감염병을 비롯한 해외발생 감염병의 국내유입과 함께 감염병 유행 및 집단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 지구적 기후변화와 감염병 관련 환경변화에 의해서 기존에 유해하지 않던 새로운 감염병이 유입 발생하거나 통제되고 있던 감염병이 재출현하여 유행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제1군 감염병 중 중점관리대상인 세균성이질은 2000년대 들어서 환자수가 크게 증가하다가 2007년 잠깐 주춤, 2008년부터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 매년 10명 내외의 발생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신종 인플루엔자,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의 발생에 따른 국민들의 개인 위생관리수준이 향상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제2군 감염병의 경우 2014년 대비 2015년에는 백일해가 50%, 수두는 12% 증가하였으며, 3군 감염병의 경우 2014년 대비 2015년 쯤쯤가무시증은 33% 증가하였고, 신증후군출혈열도 45%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4군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도 9명이 발생하였다.

올해 전남지역에서 2012년 이후 3년 만에 일본뇌염 환자 1명이 발생하여 중증 합병증없이 회복하였고, 수두환자의 경우 연중 발생하지만 소아감시체계를 통한 분석을 보면 12월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수두는 전염력이 강한데다 겨울철 들어 실내 활동이 늘면서 유치원 등 집단시설에서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만성 감염병관리

가) 에이즈 예방관리

해외여행의 증가, 성 문화의 개방 등으로 에이즈 감염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에이즈 감염자는 1985년 12월 해외 근로자가 외국에서 성 접촉으로 인해 감염된 것을 최초로 우리 도의 경우는 2015년 말 기준 225명의 감염자를 관리하고 있고 감염자 대부분은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되었다.

감염우려 계층인 유흥접객원, 다방종사자, 안마시술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015년에는 연인원 11,853명에 대해 에이즈 검진을 실시하였다.

아직 예방백신 및 에이즈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약은 개발되지 않아 스스로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하여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에 주력하였다.

나) 성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성병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고 감염 우려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병검진, 감염자 등록관리, 홍보사업 등의 실시로 제3자에게 전파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성병검진은 성병을 매개할 우려가 비교적 많다고 판단되는 특수 업태부 및 유흥접객업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

에서 정기 검진과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연인원 27,845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였다.

다) 결핵 예방관리

만성감염병인 결핵 예방관리 및 조기 퇴치를 위하여 등록환자 관리, BCG 예방접종, 환자 조기발견사업, 주민홍보 교육 등을 중점 실시하였다.

특히 결핵 양성환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치료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6개월 단독요법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완치율을 향상시켰다.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하여 유증상자, 환자 동거가족 등에 대하여 X-선 검사 및 객담검사를 강화하였고, 특히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들의 결핵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하여 시설 생활자 1,790명과, 학생 761명에 결핵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접촉자 검진 2,499명을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하여 X-Ray 순회검진을 실시하였다.

또한 환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보건교육을 규칙적으로 실시하고, 결핵관리 담당자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환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표2-263> 결핵 BCG 예방접종 실적

(단위 : 명)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4,142	14,890	14,868	13,055	12,523
보건소	6,238	6,330	6,912	6,715	5,167
의료기관	7,904	8,560	7,956	7,340	7,356

라) 한센병 예방관리

한센병 환자를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한센병의 전파를 방지하고

무의탁 한센양로자 및 한센장애인 보호시설 지원 등으로 한센병력자의 장애예방과 사회 복귀를 도모하였다.

신환자 발견을 위하여 환자·병력자 가족이나 지역주민에 대한 집진을 실시하였고, 발견된 환자는 보건소나 한센병 전문진료기관에 등록하여 치료받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한센병 환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정착농원 지원 등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하였으며, 1997년부터 2015년까지 정착농원의 간이양로시설 총 19개동 98세대를 신축하여 생활이 어려운 양로자들이 입주하여 노후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2015년말 한센병 환자는 1,340명으로 국립 소록도병원과 여수 애양병원에서 599명이 등록·치료받고 있으며, 정착농원과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 741명에 대하여는 한센복지협회 부설의원과 여수애양병원 등에서 월 1회 또는 연 2회 이상 전문적인 진료와 투약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3) 신종감염병 대응관리

가) 신종감염병 대응

보건기술의 발달, 방역체계구축, 예방접종 확대 등 다양한 감염병 예방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해외 신종감염병의 출현, 기존 감염병의 변종발생, 다양한 출입국 경로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감염병이 부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도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2015년에는 중동지역에서 유입된 메르스로 인해 전국적으로 186명의 환자와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는 물론 수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우리 도에서는 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환자 및 접촉자의 신속한 격리·치료 등 적절한 조치로 지역 내 확산을 차단하였다.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26개 격리치료병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음압 20병상을 포함하여 총 100병상의 격리치료병상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신종감염병 감시를 위해 인플루엔자 유행 감시 의료기관 8개소 운영하고 있고, 매년 시군 주관으로 위기관리훈련을 실시하여 일선기관 업무담당자의 대응역량을 강화하였고, 항바이러스제(6천명분) 및 개인보호구(9천세트) 등 의료물자를 비축 관리하고 있다.

나) 생물테러 대응체계 구축

국제행사 및 대규모 국내행사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생물테러에 대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시군 등 유관기관 합동 생물테러 대책반을 구성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하였고, 도 및 시군 보건소에 보호복, 무전기 등 개인보호장비를 비축 관리하고 있다.

또한 생물테러 조기인지를 위한 8개소의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의심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추진부

보건의료과장 강영구, 질병관리팀장 황두현, 담당자 문정숙, 허유량, 김원익, 김대준

2-3. 신성장 통합의료산업 육성

가. 통합의료센터 건립 지원

통합의료센터는 환자중심의 미래 의료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통합의료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의료인력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임상연구 등을 수행할 국가적 기반시설로써 장흥군 안양면 로하스타운 일원에 건립되고 있다.

당초 2012년 국비 10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연구를 중심으로 한 시설로 계획되었으나, 기본설계를 거치면서 연구와 교육, 치유 서비스로 기능을 확대하였다.

기능 확대에 따른 건축공사비, 감리비 등 사업비를 증액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였고, 2014년 10월에 기존 사업비 보다 56억원이 증액된 297억원으로 총사업비를 조정하였다. 이후에 2014년 12월 조달청에서 실시한 실시설계 검토 결과를 반영해 1억여원을 감액하였고, 국비 207억원과 지방비 89억원 등 총 사업비 296억원으로 추진 중에 있다.

2014년 12월 기반조성 공사를 착공하였고, 2016년 6월까지 건축 공사 등을 준공하고 9월에 개최되는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와 연계 운영할 예정이다.

2015년 3월 10일부터 25일까지 통합의료센터를 위탁 운영할 의료 기관을 모집 공고하였다. 위탁 운영관련 사업설명회에는 3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나 구비서류 미비, 운영비 문제 등으로 최종적으로 신청 기관은 없었다. 이후 재공고에 앞서 위탁 운영 신청기관을 늘리기 위해 통합의료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통합의료센터 사업 홍보를 추진하였고, 통합의료센터 운영 관련 전문가 자문과 자료 조사를 거쳐 위탁 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2차 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운영기관 선정 및 개원 이후에는 양방과 한방, 보완대체요법을 결합한 통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의학 전문가 양성 교육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 강좌 등 교육기능과 임상결과 등을 토대로 한국형 통합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통합의학 교육인증 기관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의료보험 적용과 통합의료 관련 법·제도 제정 등을 위한 정책 지원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장흥 통합의료센터 조감도>

추진부

보건의료과장 강영구, 통합의료팀장 김영두, 담당자 오세정

나. 한의약 산업화기반 구축

한방산업을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한방의 과학화, 제품화, 세계화로 도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17,000㎡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3,184㎡ 규모로 2007년에 (구)남도대학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을 설립하였으며, 한의약 전문 연구 기관으로 육성하고자 2009년 3월 개원하였다.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은 한약재 품질인증 기반구축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 한약재 품질검사와 한약자원 연구개발 및 한의약산업을 육성하고, 우수약용작물 종자 증식·보급에 힘쓰고 있다.

국정과제로 토종자원한약재 기반구축사업(2012년~2016년, 80억원), 한약제제 약효 표준화사업(2015~2019년, 50억원)을 추진하는 등 2015년 총 15건 162억원의 R&D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한약재 품질검사 467건을 실시하였으며, 기원이 확인된 한약재 종자 10종(식방풍, 우슬, 자소, 헛개, 일당귀, 하수오, 천문동, 지황, 강황, 백출)을 52개소(재배 농가 41, 업체 11)에 보급하였다.

또한 한의약산업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대구·경북 소속의 한국한방산업진흥원과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을 합병 1본부 2분소 규모로 보건복지부 소속 한약진흥재단을 설립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부

보건의료과장 강영구, 통합의료팀장 김영두, 담당자 최병록

다. 2016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 지원

환자중심의 통합의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저변을 넓히기 위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회째 개최해 온 통합의학박람회를 2016년에는 국제행사로 승격해 개최한다.

2016년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3일간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비동리 일원에서 개최 예정으로, 관람객 95만명을 목표로 총 사업비 190억원(국비 57, 도비 38, 군비 등 95)으로 추진된다.



<2016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배치도>

국제통합의학박람회는 2014년 4월부터 8월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타당성조사 용역과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의위원회를 거쳐 2014년 9월에 최종적으로 국비를 지원받는 국제행사로 개최 승인되었다.

2014년 10월에 장흥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어 12월에 장흥군수를 이사장으로 13명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된 「재단법인 장흥국제통합의학회」가 설립됐다. 국제박람회 개최 준비와 행사운영 전반을 담당할 조직위원회 사무국은 2015년 3월에 구 전남도립대학 건물에 자리를 잡고 1국 2부 6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남도 및 장흥군 공무원이 파견되었다.

2015년 4월 7일에는 ‘보건의 날’을 맞이해 국제박람회 붐 조성의 일환으로, 장흥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시·군 보건의료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박람회 성공개최 다짐대회」를 개최하였다. 박람회장 기반 조성 및 주제관 건립을 위해 2015년 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였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1월말 공사를 착공하였다.



<박람회 주제관 조감도>

박람회장 구성과 인력운영, 홍보 등을 수행할 대행용역 업체는 2015년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진행된 입찰 공고와 제안서 평가회 등을 거쳐, (주)대흥기획이 주관하고 (주)광주방송과 (주)에이투가 공동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후 10월까지 수차례 업무연찬과 분야별 협상을 거쳐 11월 11일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11월 30일에 착수보고회를 갖고 박람회 성공 개최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박람회 심볼 마크>



< 박람회 마스코트. 통합이, 장이, 흥이 >

국제통합의학 박람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대표 홈페이지 (www.expo2016.kr)는 2015년 9월에 먼저 한글 홈페이지를 개설했고, 이후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국어 서비스도 구축하였다.

2015년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한국통합의학회와 장흥군 주최로 「2015 장흥 국제통합의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중국 북경의과대학, 독일 뮌헨대학, 일본 츠크바대학, 미국 메릴랜드의과대학 등 외국 연사 5명과 국내 연사 23명이 참여했으며, 총 5부의 학술세션으로 진행됐다. 통합의학 전문가, 대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의학의 세계적 동향과 미래비전, 치료적 접근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결과와 논문이 발표되었다.

앞으로 2016년 3월부터 박람회 입장권 판매를 개시하고, 행사 개최 3개월 전인 2016년 6월까지 박람회장 기반 조성 및 주제관 건립 공사 등을 준공할 계획이다.

박람회 사후 잔존 시설물인 주제관은 통합의료센터와 연계해 관련 학회 및 교육 등 컨벤션 센터로 사용되며, 박람회장 부지는 문화, 체육, 치유공간으로 조성해 국내박람회 개최장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추진부

보건의료과장 강영구, 통합의료팀장 김영두, 담당자 오세정

2-4. 식품·위생 안전강화

가. 식품안전관리 강화

국민 소득의 증가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안전한 식품 생산 기반 조성 및 유통 식품의 안전성 검사 강화, 식품 관련 업체 지도 점검 등 식품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알권리 보장 등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관리 인증(HACCP) 업소를 확대하고 불량 식품의 신속 회수,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친절한接客서비스 정착을 위해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1) 식품제조·가공업소 관리

국민 소득의 증대와 경제수준 향상, 과학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다양한 가공식품이 대량 생산·공급되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욕구는 건강 지향적인 행태로 변화해 가고 있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가) 위생 점검 강화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 점검으로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출입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업소 등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반복 점검과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있다.

나) 전문적 계통점검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수준 향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료의 입고·보관에서부터 완제품으로 출하되기까지 각 공정에 대한 위생관리와 기계·기구류 청결, 첨가물 사용 적정여부 등 전문적인 계통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표2-264> 식품제조·가공업소 현황

(단위 : 개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품 목 별								
	과자류	절임 식품	어육 제품	두부류	조미 식품	다류	음료류	장류	기타 면류
2,390	179	417	45	91	219	741	322	301	75

<표2-265>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단속 실적

(단위 : 건)

점검 소수	검수 위업소수	반수	위 반 내 용							행 정 처 분					
			시설 기준	성분 규격	보존 및유통 기준	첨가 물 사용 기준	표시 기준	자가 품질 관리	건강 진단 등	기 타	영업 소 폐 쇄	영업 정 지	품 목 정 지	과 태 료	시 설 개 수
3,546	230	36	9	3	2	40	32	12	96	21	49	49	48	35	28

추진부

식품안전과장 이순석, 식품안전팀장 조용수, 담당자 정대성

2) 유통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국민 다소비식품과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율이 높은 품목 및 참기름, 고춧가루, 배추김치 등 시장점유율이 높은 20개 품목을 특별관리 식품으로 선정하여 반복중점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계절적 성수식품,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 유통·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연중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또한 식품제조 가공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등 계통별 발생할 수 있는 위해 항목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부적합 식품은 신속하게 회수·폐기조치 함으로써 불량식품으로 인한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표2-266> 식품유통 · 판매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계	즉석 판매 제조업	식품 소분업	식품 운반업	식품판매업				식품 냉동·냉장업	용기 포장류	건강 기능 식품 판매업
				소계	식품 자동 판매기	유통 전문 식용 얼음	기타 식품			
10,299	4,148	1,156	271	2,662	2,112	350	200	17	29	2,016

<표2-267> 식품수거검사 실적

(단위 : 건)

검사 건수	부적합 건 수	부적합 식품 내역			행정조치	타시도 통 보
		젓갈류	기타식품류	곡류가공품	품목정지	
5,832	7	1	1	1	3	4

추진부

식품안전과장 이순석, 식품안전팀장 조용수, 담당자 송하철

3)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비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학교·복지시설 등 급식시설에 대해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개학시기와 식중독 발생 취약시기인 5월~10월 까지 집중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깨끗한 급식 환경 조성 및 영양적으로 건강한 식단 제공을 위해 영양사 등 시설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표2-268> 집단급식소 현황

(단위 : 개소)

계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2,028	784	512	117	145	470

<표2-269> 집단급식소 지도점검현황

(단위 : 건)

점검 건수	위반 건수	위반내용					행정처분		
		시설 기준	건강 진단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위생 취급 불량	기타	시설 개수 명령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2,978	57	18	5	13	4	17	19	9	29

4)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불법영업근절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接客서비스 향상을 위해 영업자 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 정서에 반하는 불건전 영업을 차단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외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소비자 단체 합동 단속 등 지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표2-270> 식품접객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계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	위탁 급식영업
33,201	26,809	3,315	1,702	627	543	205

<표2-271> 식품접객업소 단속실적

(단위 : 건)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위 반 내 용							행 정 처 분					고 발
		시 설 기 준	업 태 위 반	미성년자 출입주류 판매	건강 진단	유통 기한 관련 위반	위생 취급 불량	기 타	허 가 취 소	영 업 정 지	시 정 기 타	과 태 료	과 징 금	
30,256	932	238	32	120	93	13	34	402	248	173	278	200	33	8

추진부

식품안전과장 이순석, 식품안전팀장 조용수, 담당자 정대성

나.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수준 향상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초등학교 등 학교 주변 200m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Green Food Zone)으로 지정 관리중이며, 총 715개 학교 주변에 1,144개소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가 있으며 216개소는 우수 판매업소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어린이 등이 쉽게 부정·불량 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에 대하여 학부모 등 전담관리원 155명을 위촉하여 시군 위생담당 공무원과 매월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총 9,115 개소를 점검하여 11개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또한, 과자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1,002건을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식품 규격기준을 초과한 1개 제품을 수거 폐기토록 하였으며, 햄버거, 피자 등을 취급하는 32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국가의 미래인 어린이의 건강을 위해서는 안전한 먹을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유아기는 신체와 뇌의 성장에 의한 인지능력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식품에 대한 감각과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인 만큼,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어린이 성장단계에 꼭 필요하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비(50%)를 지원 받아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의 체계적인 관리와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하여 2015년말현재 도내 16개소(2012년 1개소, 2013년 4개소, 2014년 6개소, 2015년 5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고, 어린이 급식소 수를 기준으로 1~7억원의 사업규모로 나뉘어 운영되며, 사업규모에 따라 최소 35개소 미만에서 최대 170개소 이상의 급식소를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14명의 영양사 등 급식관련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관할 지역 내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대상 급식소 관리를 지원해 주고 있다. 센터의 주요 역할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직접 방문하여 위생안전·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순회방문 지원,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영양 교육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영양관리와 위생관리 지침 및 위생교육 자료 개발, 위생 및 영양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또한, 급식 운영 현황 파악 및 지원방향을 설정하는 등 어린이 급식위생·영양 관리의 전반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표2-27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

(단위 : 개소)

계	광역시	기초	종사인력		
			소계	영양사	위생사
16	1	15	84	77	7

※ 전국 188개소 운영

추진부

식품안전과장 이순석, 위생관리팀장 이형돈, 담당자 신영식

다.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 및 관리

“식중독”이란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이다.

식중독은 일반적으로 세균성 식중독, 화학성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 식중독의 약 90%는 세균성 식중독이 차지한다.

최근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노로바이러스는 추운날씨에도 오래 생존하고 적은 양으로도 사람 간 접촉에 의해 쉽게 전파되는 균으로 겨울철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중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충분한 가열과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이 중요하다.

세균성 식중독은 소화기계 감염병과 달리 식중독 균의 존재만으로 식중독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균량을 섭취하였을 경우에만 식중독이 발생되기 때문에 식중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한 가열·조리와 위생적인 취급으로 식중독 예방은 충분히 가능하다.

식중독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학교급식소, 학교식재료 공급업소, 일반음식점 등을 식중독 취약업소로 지정하고 계절별·시설별 맞춤형 위생교육과 예방 점검을 중점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5~10월)에 매일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식중독 발생 지수를 집단급식소·대형음식점 영업자 등 1,800여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발송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식중독 발생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2-273> 식중독 발생현황

(단위 : 명)

연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	177	17	5	6	3	27	4	34	32	15	19	15	
2014	382	4	22		9	68	187		12	25	5	48	2
2013	514	27		4	14		66	251	77	40	6	29	
2012	243	4	38		22	88	33	5	46	7			
2011	251	15			50	45	16	4	39	25	39	18	
2010	89				26	5			48	10			

추진부

식품안전과장 이순석, 식품안전팀장 조용수, 담당자 정대성

라. 음식문화 개선 조기 정착

우리 도가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도좋은식단 음식문화개선 운동은 국, 찌개와 여러 가지 반찬을 다함께 집어먹거나 떠먹는 비위생적인 공동식습관을 집계, 국자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앞접시에 덜어먹거나 개인별 찬기에 담아 위생적으로 먹자는 운동이다.

1) 홍보활동 전개

낭비적이고 비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세계 수준의 안전한 음식문화로 개선하기 위해 덜어먹기 실천 등 음식문화개선 스팟광고 40초 분량을 제작하여 MBC, KBS, KBC, CMB 등 지방 TV방송에 683회 홍보를 실시하였고, CBS, PBC 라디오 캠페인 홍보를 510회 하였으며, 기타 신문 및 인터넷 뉴스 배너광고 등을 통해서도 언론 홍보 실시하였다.

또한 도내 운영 중인 시외버스 16대 외부(측면)광고를 실시하였고, 제22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행사시 음식문화개선 홍보관을 운영하였으며, 학생 대상으로 글짓기, 포스터 등 음식문화개선 공모전을

실시하여 응모된 우수 작품 66점에 대하여 시상하고 글짓기는 작품집으로 포스터 및 표어는 전시용으로 제작하여 홍보하였다.

2) 교육 및 캠페인 전개

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기존 및 신규자 교육시 음식문화개선 과정을 포함하여 22회 15,75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 음식점을 대상으로 3대 청결운동 (깨끗한 환경, 깨끗한 복장, 깨끗한 음식)과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덜 짜게 먹기 실천운동을 전개하였다.

3) 남도좋은 식단 모니터요원 위촉 운영

남도좋은식단을 적극 권장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선진 위생업소 육성을 위해 시군에 활동 중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에서 66명을 위촉하여 개별찬기 집게 등 위생용품 지원업소 1,729개소를 대상으로 앞접시 사용 등 덜어먹기 실천에 대하여 2개월마다 모니터를 실시하였다.

4) 모범음식점 및 남도음식명가 지정 관리

일반음식점 중 식품위생환경 등이 우수하고 음식문화개선을 실천하는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관리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모범음식점 997개소를 지정하였다

또한 남도고유의 맛을 지닌 특색있는 음식점을 발굴·계승하기 위해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명가 114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평가표지판 부착 및 홍보책자 제작과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 전국에 홍보하고 있다.

5) 남도음식문화 해설사 양성

도내 활동중인 문화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지역의 향토음식을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우리 도를 찾아오는 외래 관광객에게 관광유적지 소개와 함께 남도음식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시군별 2~3명을 대상으로 전남도립대학에 위탁하여 음식문화해설사를 양성하고 있다. 2014년 25명과 2015년 23명을 양성하여 현재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6) 추진 성과

도와 시·군 담당급이상 공무원 7,134명에게 1음식점을 지정하여 분기 1회 이상 업소를 방문하여 덜어먹기, 음식점 위생관리 상태 등을 모니터링하여 음식문화개선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음식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모, 국자, 집게 등을 제작 지원하였고 외국관광객과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등)의 음식점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모범음식점 50개소에 입식테이블 설치를 지원하였다.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15년 1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추진부

식품안전과장 이순석, 음식문화팀장 박홍근, 담당자 서은숙

3.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전남

3-1.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가. 여성 맞춤형 일자리 지원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능력을 개발하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연계하는 맞춤형 취업·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개소씩, 2015년에는 2개소를 신설하여 총 9개소(시·군 8개소, 광역본부 1개소)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에는 59명의 취업설계사가 활동하여 11,139명의 구직 희망 여성 중 7,217명의 여성이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하였다.

<표2-274> 여성 취·창업 지원실적

(단위 : 명)

연도	개소수 (광역본부)	구직희망 등록여성	취·창업수		
			계	취업자	창업자
2013	7(1)	7,823	5,262	5,225	37
2014	7(1)	9,772	6,633	6,612	21
2015	9(1)	11,139	7,217	7,188	29

2) 전남 여성일자리 박람회 운영

출산 및 육아, 가사노동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우 자신의 커리어와 현 실정에 맞는 취업 기회를 찾기 어렵고, 전남의 영세한 기업은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기업 홍보와 취업자들의 인식 부족

으로 인력난을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여성만을 위한 취업·창업 박람회를 시작으로 2015년부터는 전남여성일자리 박람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목포, 여수, 순천, 나주)로 4회 개최하여 도내 852개 기업을 발굴하였고 732명의 여성이 취업에 성공하였다.

<표2-275> 여성 일자리박람회 운영실적

(단위 : 개소, 명)

구 분	참여업체	구 인	면 접	채 용
2012년(4회)	855	2,189	2,775	684
2013년(4회)	835	2,256	2,658	714
2014년(4회)	901	2,099	3,113	772
2015년(4회)	852	1,945	2,994	732

추진부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여성정책팀장 김학송, 담당자 손예정

나.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양성평등기본법(2015.7.1.시행)에 의거 전라남도 양성평등기본 조례를 개정(2015.7.2시행)하고 여성가족부의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 계획(2015~2017) 수립에 따라 2016년부터 전라남도 양성평등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정책 환경의 요구를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5.8.4시행) 개정에 따라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개정(2015.7.2시행)하고 자치법규, 세출예산단위 사업, 중장기 계획에 대한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사전 분석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다. 조례 및 자치법규 1,383개, 사업 과제 784개 등 총 2,167개의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

하여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도 및 시군 공직자 4,116명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식 고취를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들에게 성인지적 마인드를 함양시켰다. 아울러 연말에 실시한 양성평등 추진 시책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순천시 등 6개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이들 기관에는 표창과 함께 5백만원의 시상금(양성평등 기금)을 지급하였다.

추진부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여성정책팀장 김학송, 담당자 선수정

다. 양성평등기금 조성 및 운용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7조에 따라 남녀 평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1997년부터 2028년까지 32년간 100억원 목표로 양성평등기금을 조성중 이다.

2015년말까지 도 출연금 43억원, 시군 출연금 12억원, 이자수익금 24억원 등 총 79억 5천 3백만원을 조성하였으며, 매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양성평등 의식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17억 6천만원(2001년 69, 2002년 86, 2003년 94, 2004년 95, 2005년 97, 2006년 94, 2007년 84, 2008년 95, 2009년 130, 2010년 140, 2011년 100, 2012년 175, 2013년 181, 2014년 126, 2015년 194)을 지출하고, 2015년말 현재 61억 9천 3백만원을 조성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도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 등 시책발굴 및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으로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촉진할 계획이다.

추진부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여성정책팀장 김학송, 담당자 김해지

라. 전남여성플라자 운영 활성화

(재)전남여성플라자는 여성의 능력개발 및 지위향상과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가족정책의 연구·개발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여성플라자를 신축, 자본금을 출연하여 2008. 7. 29일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2009년 4월부터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정책연구 41건, 정책토론회 등 정책이슈 제시 14건, 여성전문교육 20,955명 실시와 여성일자리 사업을 위한 전남광역새일센터 운영,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수탁사업도 성실하게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및 소통·협력의 구심점이자 지역특성·여성가족의 욕구에 부응하는 성평등 정책 지원·실행의 중심기관이 되고자 조직을 정비하고 전남 여성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현안 중심의 생활밀착형 조사·연구 15개 과제수행, 여성 일자리·안전·리더십 역량강화교육 14개 과정(7,009명),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9개 사업(71회, 2,032명), 전남광역새일센터의 여성 일자리 지원 9개 사업을 추진했다.

앞으로도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사회·경제적 참여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2018년까지 교육 88과정 28,260명, 정책이슈발굴 71건, 취업 11,740명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여성정책팀장 김학송, 담당자 조순복

마.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잠재적인 능력과 조직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솔선 참여를 유도하며, 건전 사회기반 구축을 위해 조직된 여성단체는 2015년말 기준 전라남도 여성단체 협의회를 비롯하여 16개 단체에 회원수 254천명이 활동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활동과 여성문제에 대한 공동의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남여성의 권익신장 및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한 여성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에서는 여성단체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건전한 육성을 위해 연 60백만원의 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성단체의 주요사업으로는 여성·아동 지킴이 교육 및 수도권 여성단체 교류 등 사회참여 지원사업,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및 독거노인 사랑 나들이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단체별 특성사업을 실시하였다.

16개 단체 254천명

- 전라남도 여성단체협의회
- 대한간호협회전남간호사회
-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남도지부
- 전라남도 새마을부녀회
- 전라남도 21세기여성발전협의회
- 한국걸스카우트전남연맹
- 한국여성유권자 전남연맹
- 농가주부모임 전남도연합회
-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 대한조산협회 전남간호사회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남지회
- 전라남도 여성자원봉사협의회
- 전라남도 생활개선회
- 한국부인회 전남도지부
- 한국자유총연맹 전남여성협의회
- 대한어머니회 전남연합회

추진부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여성정책팀장 김학송, 담당자 김해지

3-2. 공보육 인프라 확충 등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가.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 및 공보육 인프라 구축

만 0~5세 영유아에 대해 전 계층 무상보육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2015년에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55,615명에게 보육료 238,24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미취학 만 84개월 미만 전(全)계층 아동 27,793명에게 양육수당 58,682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농어촌 및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등 보육 취약지역에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확보로 보육 사각지대 해소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어린이집 매입과 신축 등을 통해 2015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6개소를 확충하여 92개소를 운영하였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 보육 인프라로서 기능을 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10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57개소를 운영하였다.

또한 보육 기반이 취약한 중앙평가 미인증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중앙 평가인증 및 우수 어린이집인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전라남도 인증어린이집을 2015년에 52개소 지정하였으며, 인증어린이집 품질 유지 및 보건복지부 평가인증 대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라남도 인증어린이집은 2018년까지 200개소를 지정·운영하여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을 강화하여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 양성교육을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실시, 2015년에 77명을 양성하였고, 보육교직원 640명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직무교육, 승급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비용(직무교육 6만원, 승급교육 12만원)은 전액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였다.

아울러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상담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도민에게 보육에 대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전남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전남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 및 재무회계규칙 교육과 평가인증 및 전남인증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의 상담과 심리검사, 육아 관련 정보제공 등 가정양육 육아 지원 및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보육 어린이집으로 영아전담 43개소, 장애아전문 13개소 및 장애아통합 14개소, 시간연장형 332개소, 방과 후 24개소, 휴일보육 8개소, 24시간보육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추진부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보육아동팀장 김형심, 담당자 송정혜

다. 부모 안심 보육환경 조성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로 부모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1,238개소 어린이집 중 보건복지부 평가인증 어린이집 개소수를 869개소까지 향상시켰다.

각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진행과정 중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도출된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여 영유아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관련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재무회계규칙 교육과 연찬회를 각 1회씩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 50명에 대해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과 위생관리를 수시로 실시하여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어린이집의 투명하고 적절한 운영으로 보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12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로 구성된 부모모니터링단 137명을 운영하여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 관리 등 운영 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추진부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보육아동팀장 김형심, 담당자 송정혜

4. 건강한 가정 육성

4-1.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강화

가.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을 위하여 21개소(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의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를 지정·운영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입국초기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및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한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개인과 가족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녀양육 등 결혼이민자의 정착기에는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부모의 자녀 양육 능력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서비스 및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209명의 방문지도사를 통하여 1,709명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방문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경제·사회적 자립지원 강화를 위하여 각종 자격취득을 위한 취업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고 모국어 능력을 활용한 결혼이민자 통·번역사(23명) 채용과 2013년부터 이중언어 강사 67명을 양성하여 취업과 연계하고 2015년부터 모국어상담원을 양성(3개년 교육 과정 중 1차년도 54명 수료)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결혼이민 여성의 특성을 살리는 적합 직종을 개발 및 취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추진부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다문화팀장 곽재구, 담당자 김미경

나. 다문화가족 교육 확대 지원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한국어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글로벌 인재양성 기반을 마련하였다. 결혼 이민자 및 중도 입국자녀를 대상으로 22시군에서 1,385명에게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을 위하여 지도사 23명이 파견되어 981명에게 언어평가 및 한글교육 등 대상자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지원하였다.

다문화가족의 우리문화 이해 및 공동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으로 엄마아빠 나라말 경연대회를 8월에 실시하여 24명의 초·중학생이 부모 나라 말로 “나의 꿈”을 이야기 했으며, 다문화가정의 정체성 확립과 건전한 가족관계 정립을 위하여 가족교육, 부부공동체훈련, 통합교육 프로그램 등 공모사업을 통해 8개소에 26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추진부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다문화팀장 곽재구, 담당자 김미경

다. 다문화가족 인권보호 강화

국제결혼 과정의 인권보호와 교육프로그램 강화를 위하여 결혼중개업자의 신상정보 사전제공을 의무화 하고, 결혼중개업소에 대하여 연 2회 현장방문을 통한 결혼중개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또한 21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다문화의 이해 및 다문화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을 보호하고, 의료·법률·출국 등의 지원을 위하여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여수이주여성쉼터, 여수다문화여성쉼터)를 운영하여 숙식제공,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본국으로의 출국절차 등을 지원하였다.

추진부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다문화팀장 곽재구, 담당자 김미경

4-2. 여성·아동·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가.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1) 통합지원센터 및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운영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 등 폭력 피해여성이 주간에 상담을 요청 할 수 있는 곳은 많으나 상담창구가 다원화되어 있고 야간이나 휴무일에 운영이 되지 않아 긴급한 상황 시 상담전화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여성들이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 없는 특수 전화번호로 [여성 긴급전화 1366]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을 위하여 센터 내 긴급피난처를 설치 운영, 7일까지 보호를 하고 있으며, 계속 보호가 필요할 경우 보호시설로 연계하여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지원에 노력하여 2015년도에 5,632건(가정폭력 3,451, 성폭력 336, 성매매 50, 이혼 96, 기타 1,699)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를 위한 신고의무자·아동·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을 통한 조기발견 및 심리상담, 치료, 모니터링 등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에 힘쓰고, 아동·장애인 등에게 피해자 치료 동행서비스 및 돌봄서비스, 간병비 지원 등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2개소에서는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확대 및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였다.

2) 성폭력피해방지 및 상담소 운영

최근 가치관의 혼란으로 향락풍조가 만연하고 남녀 차별적인 왜곡된 성문화의 영향으로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더욱이 그 피해대상자가 어린이 등 미성년자가 많고 집단화,

흉폭화 되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와 예방대책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성에 대한 지식과 가치관 정립,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학생 및接客업소 종사자, 청소년을 둔 부모, 근로여성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대책으로는 상담소별로 의료인, 법조인 등 관련 기관과 연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피해자 치료와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신고와 상담에 응하며 긴급한 보호가 필요할 경우 병원 또는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 배상 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대하여 협조와 지원을 해주는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운영 중이며,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9개소의 상담소(목포2, 여수, 순천, 나주, 담양, 해남, 무안, 함평)에서 6,536건(장애인 1,012건 포함)의 상담을 실시하였다.

성폭력피해 상담소는 날로 증가되는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심신 안정을 도모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회복프로그램과 가해자교정·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예방교육과 도민인식 전환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3) 가정폭력피해방지 및 상담소 운영

사회구성원의 기본단위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가정 내의 문제로 간주하는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대부분 외부노출이 되지 않으며 사회와 정부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었다.

지난 1997년 12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가정폭력을 사회적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그동안 개인의 일로 치부되었던 가정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관련 기관과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지원으로 가정폭력의 방지와 피해자의 건전한 가정생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신고와 상담 및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가정폭력상담소는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의 인도, 행위자에 대한 신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법률적, 의료적, 심리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가정폭력상담소 12개소가 설치 운영 중으로 2015년도에 9,611건의 상담활동을 하였다.

또한, 이들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4)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가정폭력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여성과 그 가족구성원의 안정을 되찾게 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와주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도내 4개 시설(목포, 여수, 순천, 광양) 운영되고 있으며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이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 및 성폭력피해 여성을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여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되찾게 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와주기 위해 도내 2개 시설(목포, 여수)이 운영되고 있으며 목포의 장애인보호시설은 2년 이내, 여수의 일반보호시설은 1년 이내 입소를 원칙으로 한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는 운영비를 지원하여 피해자를 일시보호하며 법률적, 의료적, 심리적 지원을 위해 피해자 회복치료와 자립을 도와주고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를 위하여 4,291백만원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복귀를 유도하였다

5) 성매매피해자 지원·운영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현장상담, 법률·의료지원, 관련시설 연계 등을 통해 인권유린 상황에 조기개입하고 피해자 보호와 탈성매매 지원을 위한 성매매피해 상담소 3개소(목포, 여수, 순천) 운영하여 2015년 2,883건의 상담을 실시하였다.

성매매피해 여성 및 성매매 우려가 있는 여성을 시설에 보호하여 심리안정, 인성변화, 진학 및 취업교육, 직업알선 등 자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2개소(여수, 순천)를 운영하고 있다.

보호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당해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6개월 이내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입소자들에게는 무료 숙식을 제공하고 의료·법률문제를 지원 인성 변화 위주의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자아성취를 위한 방안으로 초·중고 중퇴자를 위한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 9월말 현재 16명이 보호를 받고 있다. 성매매피해자보호를 위하여 1,217백만원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복지기를 유도하였다.

추진부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가족복지팀장 최영옥, 담당자 오경희

나. 아동·여성안전 지역사회 환경 조성

1)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지역사회 민·관협력과 자원·정보교류 등을 통한 아동·여성보호 및 지역안전망을 구축하여 성폭력 및 가정폭력(아동학대 포함) 등 아동·여성폭력피해 예방활동 전개 및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도모하였다. 23개소(도·시군) 지역연대를 운영하였으며 166백만원을

지원하여 운영위원회 23회, 실무사례협의회 46회 등 유관기관 간 연대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폭력예방 주민홍보, 캠페인 전개 등 위기여성·아동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체계를 확립하였다.

2) 아동안전지도제작 및 지역안전프로그램 운영

지역 내 위험환경요인 정비사업으로 도내 107개 초등학교 아동들이 직접 학교 주변의 안전요인과 위험요인을 표시한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였으며 초등학생 생활공간 주변에서의 범죄예방과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성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도모하였다.

또한, 아동·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지역 상담소, 지역 경찰서, 지역토착민, 지역사회 구성원 등이 연대하여 폭력피해자에 대한 문제해결 및 사례관리 등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모니터링단(22명)을 구성하고, 지역토착민(통장, 이장, 유관기관 단체 등)이 등대 지기단(45명)을 구축하여 지역의 안전진단 및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취약지역의 야간순찰 활동 등을 전개하여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지역안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개선을 강화하였다.

추진부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가족복지팀장 최영옥, 담당자 오경희

다. 위기·취약가정 돌봄서비스 확대

1)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12세 미만 자녀 아동양육비(월 10만원), 중·고등학생자녀 학용품비(연 5만원), 생활지원금(월 3~6만원), 대입자녀 신입생학자금(1백만원 내) 지원 등 내실 있는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로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와 부가 세대주인 가정이며, 2015년 9월말 현재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7,566세대(세대원 19,643명)로 모자가정 5,243세대(세대원 13,695명), 부자가정 2,105세대(세대원 5,465명), 청소년한부모가정 137세대(274명)가 지원을 받고 있다.

<표2-276> 2015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월)

구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최저생계비 130%)	1,366,362	1,767,594	2,168,827	2,570,061	2,971,293

2) 취약·위기가족지원

취약·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도모를 위해 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광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180% 이하 한부모·조손·미혼모부자가족 등 취약·위기가족 및 가정폭력·이혼·자살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에 직면한 긴급위기 가족이며, 지원내용은 사례관리, 부모·가족·자녀양육 교육,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자녀학습정서지원(배움지도사 파견), 생활가사지원(키움보듬이 파견) 등으로 2015년 9월말 현재 111세대에 취약·위기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3)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법원과 연계하여 이혼준비 가족에 대한 신중한 이혼의사 결정 및 미성년 자녀가 겪는 심리 정서적 불안과 고통을 최소화하고 가정 및 학교생활의 적응력 제고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순천시여성상담센터에서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내용은 아동복리적 관점에서 이혼신청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이혼위기 상담·교육·문화 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 9월 현재 792명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송 취하 31건, 조정성립 7건 등의 사업성과를 달성했다.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을 통해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및 미혼모자가족의 건강한 자녀양육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총 5개소로, 모자가족복지시설 2개소(목포태화모자원, 함평자광모자원) 및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3개소(목포성모의집, 순천 살로메나눔터, 나주 어린엄마동지)가 운영 중이다.

<표2-27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시설유형		시설명	소재지	입소 정원	입소대상	입소기간 (연장가능)
모자가족 복지시설	기본 생활 지원	태화 모자원	목포시 용당 국민로 7	99명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3년 (2년)
		자광 모자원	함평군 함장로 1202-36	60명		
미혼모자 가족복지 시설	기본 생활 지원	성모의 집	목포시 동명 들목로 5-1	12명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후(6월 미만) 지원을 요하는 여성	1년 (6월)
	공동 생활 지원	살로메 나눔터	순천시 남제새길 53-43	20명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2년 (1년)
어린엄마 동지	나주시 보현길 9-4	18명				

5)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갖추고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9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2-278>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

센터명	운영주체	센터장	주소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조혜정	목포시 송림로 41번길 11
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수시(직영)	송석주	여수시 좌수영로 369-1
순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신숙	순천시 중앙로 225-12
광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암대학교 산학협력단	손경화	광양시 중마로 410
구례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암대학교 산학협력단	류동수	구례군 구례로 508
장흥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재)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합동축)유지재단	최선자	장흥군 흥성로 37-24
해남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복)두성재단	정광선	해남군 북부순환로 10
장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복)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	양요섭	장성군 충무5길 24
완도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행복한쉼터	김해용	완도군 개포로 34-10

추진부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가족복지팀장 최영옥, 담당자 문광제

라. 저소득층 아동복지 증진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경제·정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드림스타트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 위탁아동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 및 나눔문화 추진

전남·경북간 나눔문화 실천으로 화합과 우의 증진 및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5년 7월 23일 전라남도↔경상북도↔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2개 시군에서 추천·위촉된 52명의 추진위원을 주축으로 천사프로젝트 추진위원을 구성하여, 양 道간 1,004명의 후원자를 발굴하여 저소득아동에게 교차지원할 수 있도록 후원자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후원자 결연은 정기지원과 일시지원으로 나뉘지며, 정기지원은 매월 아동 100~200명을 선정하여 월 5~10만원씩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게 되며, 일시지원금은 목표액 1억원을 달성 후, 2016년부터 지역 탐방캠프, 주거지원사업, 드림오케스트라 공연 후원 등 저소득 아동들을 대상으로 영·호남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2015년에는 저소득층 아동지원을 위한 민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와 사회통합 등 다양한 나눔문화 발굴 확산을 위하여 9월 18일 전남도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CJ나눔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총 6억 5천만원의 성금을 모금,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저소득층 아동의 꿈키움 캠프에 사용했다.

2) 저소득층 아동 문화예술 지원

음악적 관심과 재능이 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기회를 갖지 못하는 저소득아동들의 소질을 개발하여 그 재능을 향상시키고,

음악을 통해 아이들의 자존감과 정서발달에 도움을 주기위해 지난 2015년 10월 16일 전남도화 (사)전남문화예술협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 도내 저소득층 아동의 문화예술분야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3)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 및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5년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379개소 22,148백만원을 시설내 전문분야별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교사 350명을 채용 파견,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 등에 12,93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미 지원 시설을 포함한 총387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 10,545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4) 드림스타트 운영

0세~12세까지의 저소득 아동 및 가구에 보건·복지·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통합사례 관리를 통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공평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2007년부터 “전남아동행복마을”을 조성·운영하여 왔다.

* 전남아동행복마을이란 위스타트와 드림스타트를 통합하여 일컫는 말

위스타트 운동본부와 연계한 기업지원형인 “위스타트 전남아동행복마을”은 2006년도에 기업 후원을 받아 시작한 후 3개소(광양시, 장흥군, 진도군)를 운영해왔으나, 경기침체로 기업후원 중단이후 도비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위스타트 사업은 2014년 광양시, 진도군의 드림스타트 개소로 2015년부터 폐지되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7년도에 위스타트 사업을 모델로 시범사업을 2개년에 걸쳐 시행하다,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2014년 광양시, 진도군을 마지막으로 도내 전 시·군(22개)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6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6,000여명의 아동을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 6월 1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 드림스타트사업 보고대회에서 2014년 사업평가결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고흥군이 대통령 표창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영암군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사업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전라남도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5) 가정위탁 및 아동급식지원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가정위탁 아동들에게 양육비, 대학진학금, 세대 위로금, 명절제수비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527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참여하여 18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등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해당시군에서 아동급식위원회 급식지원여부를 확정하여 급식의 질과, 영양, 위생 등에 대하여 결정하고 아동의 가정환경 및 지역실정에 맞는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급식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맞벌이가정 아동, 한부모가정 아동 등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단체급식소(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및 일반음식점 등에서 자원봉사자들과 더불어 협조체계를 구성하여 식사제공 또는 밑반찬을 배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대상자 13,278명에게 4,128백만원, 방학중 급식대상자 15,493명에게 1,246백만원, 결식아동 급식대상자 223명에게 95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추진부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보육아동팀장 김형심, 담당자 최순희, 김효석, 양지우

마. 요보호 아동 권익보호 및 자립기반 마련

1)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요보호아동은 입양, 위탁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이에 적합하지 아니한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서 양육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조기 자립유도를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시설 내 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 보호아동의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 도의 아동복지시설은 총23개소(아동양육시설 21, 아동보호치료시설 1, 자립지원시설 1)이며 시설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아동생활용돈 등 10종에 대하여 22,845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표2-279> 아동복지시설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시설수(개소)	종사자(명)	보호아동(명)	지원액
2010		23	437	1,363	16,148
2011		23	448	1,339	18,447
2012		23	447	1,287	17,248
2013		23	447	1,237	18,421
2014		23	448	1,172	19,558
2015		23	454	1,166	22,845

또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9개소의 아동 공동생활가정에 운영비 등으로 1,695백만원을 지원하였다. 2015년부터는 아동양육시설 생활아동과 동일하게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에게도 아동생활용돈, 교복구입비, 수학여행비, 대학진학자금 등을 신규로 지원하고 있다.

<표2-280>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 구분	운영 시설수 (개소)	지원 시설수 (개소)	종사자(명)	보호아동(명)	지원액
2014	34	25	68	175	1,105
2015	29	29	63	155	1,695

* 2015년부터 학대피해아동쉼터(5개소) 별도운영·지원함

2)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

아동복지시설 안전점검 결과 개축(보수)대상 및 노후 숙사, 장비 부족시설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아동복지시설 7개소에 증개축 및 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비 856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표2-281>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연도별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7	797	5	819	8	1,202	27	3,377	6	414	7	856
증개축 및 개보수	6	779	4	799	4	1,024	8	2,400	4	368	5	600
장비 보강	1	18	1	20	-	-	3	40	1	14	-	-
시설 신축	-	-	-	-	-	-	-	-	-	-	-	-
소방 설비	-	-	-	-	4	178	16	937	1	32	2	256

3) 퇴소아동 자립지원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준비 역량강화 및 보호 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실현을 위하여 시설퇴소 아동들에게 자립정착금(1회/3백만원)을 지원하고 2015년 자립형공동생활가정 2개소를 나주와 순천지역에 신규 개소하여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회진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의 가입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후원자 발굴 등에도 힘쓰고 있다.

4) 아동학대예방 및 안전대책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유기와 방임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아동안전사고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모든 아동이 사고로부터 보호받아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아동안전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기·미아 발생의 예방과 실종아 찾기에 관한 지원에 적극 나섰다.

우리 도에서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순천, 목포, 나주)를 지정하여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학대 피해아동쉼터를 기존 3개소에서 2개소를 증설하여 총5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연계 시스템 강화를 통한 기관별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운영지침 마련, 신고 의무자 및 위기가정 부모교육 등 예방교육·홍보강화, 돌봄시설 지역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등에 힘쓰고 있다.

추진부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보육아동팀장 김형심, 담당자 최순희, 김효석

바.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을 통해 청소년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생활권내에서 청소년들이 정서함양 및 자질배양을 위한쉽터·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공청소년수련관 9개소, 생활권에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욕구의 자발적인 표현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화 능력함양이 가능한 청소년 전용 문화·휴식공간인 청소년문화의집 17개소, 자연권내에서 청소년들의 야외 수련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수련원 13개소, 청소년야영장 6개소, 유스호스텔 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도는 시설 노후, 기후변화 등에 대응 할 수 없는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의 현대적 공간화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13개소의 수련시설에 대하여 11,385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2016년에도 순천시, 강진군, 곡성군에 청소년문화의 집과 고흥군에 청소년특화시설 건립을 지원할 계획이며, 도 수련원과 담양군,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등 3개소의 기능보강사업을 통하여 현대적 공간 확보로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고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권내의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지원으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특성화·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 건전육성과 주5일 수업에 따른 주말프로그램, 협동심 함양,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 청소년들의 선호 및 욕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2015년에는 6개 수련시설 내에서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조사 결과 85%의 고객만족 성과를 거양하였다.

도는 청소년 건정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에도 도내 8개소 수련시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및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전담지도를 통해 인성함양공동체 구현 및 도전정신 등을 길러줌으로써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창의적인 세계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론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청소년수련관 6명, 청소년수련원 4명, 문화의집 14명 등 24명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 지원하였다.

도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창의적인 세계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16년에도 22개소의 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추진부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청소년팀장 채희섭, 담당자 이관후

사. 학교 밖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상담, 보호, 의료, 자립 등 맞춤형 학업복귀 및 자립지원 서비스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와 15개 시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검정고시, 복교 등 학업복귀 240명, 자격증 취득, 취업 등 사회진입 585명으로 총 825명의 성과를 올렸다

또한 2015년 9월부터 2012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있는 제도권 초·중학교 무상급식에서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 대한 교육적 차별 해소를 위해 2015년 9월부터 8개교 185명에 급식비를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추진부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청소년팀장 채희섭, 담당자 최아라

아.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운영 활성화

청소년들의 성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전라남도에서 자본금을 출연,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합하여 2009년 1월 부터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을 설립하고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학습, 진로문제 등 고민과 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상담과,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긴급구조, 방문상담, 심리치료사업, 일시보호시설 운영 및 지역연계(의료, 법률, 자립 등)지원, 청소년 전화 1388의 24시간 운영 등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2-28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실적

(단위 : 건)

상담실적	상 담 지 원				
	상담사업 (상담 및 교육연수등)	청소년 동반자	위기청소년 구조·연계	아웃리치 및 방문상담	학교 밖 청소년 상담
107,765	98,056	966	58	8,350	335

또한 미래의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을 밝고 건강하게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활동,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청소년활동 정보제공, 청소년 국제 성취포상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활동 지원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지역 단위의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중심의 청소년문화를 신장시켜서 활성화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도내 7개소에서 연간 10~20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64개 이상 청소년 동아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 재단에서는 도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함은 물론 참여확대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 정책 제공, 사회참여 활성화로 권익신장과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시키고,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Global citizenship) 함양과 인도주의적 세계관 배양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표2-283> 2015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실적

(단위 : 명, 개)

활동 실적	활동종류					
	청소년활동 요구조사	봉사 교육	수련활동 인증제 및 신고제 컨설팅	봉사활동 동아리 지원	지역연계 협력기관 교류	기타
275,317	3,102	111,891	452	75,809	373	83,690

추진부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청소년팀장 채희섭, 담당자 성미숙